

A J O U
V I S I O N
4.0

연결지성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학

아주대학교

시간 속에 새겨지는 자랑스런 50년
마음 속에 다짐하는 아주비전 50년
세상을 이끄는 세계 중심대학으로-
연결지성의 세계적 플랫폼으로-
대학을 바꾸는 대학에서
세상을 바꾸는 대학으로 나아갑니다

아주인사이트 2019 여름호
총권 28호

숲과
나무 바라볼
틈을

가지게

숲속 작은 꽃,
나무앞에서도

생의 값진
무언가를
배우게

최근에 두 개의 영화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미테이션게임>과 <무한대를 본 남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수학자들에 관한 것이어서 오래 전에 보고 여운이 남았던 차였습니다.

전자는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을 앞당긴 숨겨진 주역인 천재 수학자 앨런 튜링의 고뇌와 사랑에 관한 영화입니다. 영화는 인류 문명을 발전시킨 기술이 전쟁을 통해서 탄생했음을 보여줍니다. 튜링과 친구들이 인명 살상에 관해 논쟁하는 장면은 철학적 화두를 제공합니다. 독일군의 공격 계획을 해독해서 사전 개입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지만, 자주 개입하면 적군이 아군의 해독 사실을 알게 되므로 선택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상황은 튜링을 고뇌에 빠뜨립니다.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죽일지를 결정하는, 마치 신의 권능 같은 것을 가진 인간의 고뇌입니다. 지적인 작업이 갖는 양면성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무한대를 본 남자>는 직관적 천재 수학자인 라마누잔이 스승인 하디 교수를 만나 당대 최고의 수학적 업적을 이루는 과정을 그린 일종의 버디 무비입니다.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수학자 루카 파치올리의 교류에 비견되는 연결 지성을 상징하는 또 하나의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다큐에 가까운 정도로 사실적으로 그려진 두 영화에서 재미있는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난공불락의 암호였던 '애니그마'를 해독하는 계기가 친구와의 취중 대화중에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인간의 실수가 과학적 상상력을 만났을 때 역사적 순간과 조우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직관적인 통찰로 출현한 라마누잔의 이론들이 하디로부터 시작된 증명 시도가 없었다면 후대에 깊은 영향을 끼치지 못했을 겁니다. 정규교육을 받지 못했던 인도의 시골 마을에 사는 한 청년이 당대의 석학 하디를 만나서야 최고의 수학자로 기억될 수 있었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보완해 주는 존재,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연결지성의 요체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낯선 강의와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필연은 우연이라는 모자를 쓰고 온답니다. 나와 다른 것들을 만날 때 세상은 더욱 풍부해집니다. 나와 다른 것들을 기꺼이 맞이할 때 연결지성의 무한한 가능성을 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연결지성의 무한한 가능성

'나와 다른 것들'을 마주해보세요

총장 박형주 



02 **총장 인사말**
연결지성의 무한한 가능성

04 **AJOU POWER 1**
아주비전 4.0 5대 전략
피관학기제

10 **AJOU POWER 2**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작지만 강한 대학, 젊지만 큰 대학

14 **AJOU POWER 3**
산학협력단
사회 변화에 맞춘 창의적
산학 협력 주도

18 **PHOTO ESSAY**
잠시 멈춰 선 발길
산현림 시인

20 **AJOU STAR**
공유서재가 있는 서점, 니은서점
노명우 사회학과 교수

24 **AJOU STAR**
"기회 붙잡는 인재? 따로 있죠!"
하연태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부사장

28 **AJOU STAR**
'강아지 대통령의 치열한 인생 기록'
이용중 이삭애견훈련소 대표

32 **GLOBAL ALUMNI MESSAGE**
오직 자신의 능력으로 평가받을 것
양익혁 동문

34 **CONNECTING THE WORLD**
총장이 간다
시카고 동문을 만나다

36 **ALUMNI**
필터시장 기술독립 이끈 이노필텍

38 **COLUMN**
4차 산업혁명의 선두를 이끌어갑니다
소프트웨어학과

43 **NEWS**

50 **DONATION**
있을 때 잘하자!

CONTENTS

숲과
나무 바라볼
틈을 가지게

숲속 작은 꽃,
나무앞에서도

생의 값진
무언가를
배우게

CREDITS

PUBLISHER president 박형주
EDITOR office of communications 정말희, 권지영, 변재우, 조윤정
PHOTOGRAPHER sssaunastudio 김성재, 이대원, 박사홍
Edit & Design plus81studio
SUPERVISOR office of communications 이건

<AJOUINSIGHT> 이 간행물 내용중 상의 후
복제 및 전재를 환영합니다.
<AJOUINSIGHT> 구독이나 수신거부-주소
변경은 이메일(hongbo@ajou.ac.kr)로 요청바랍니다.

1649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Tel.031-219-2114
Copyright © 2019 Ajou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



봄여름가을겨울
<이주인사이트> 2019(4352) 여름호 통권 28호

AJOUINSIGHT.
AJOU UNIVERSITY QUARTERLY MAGAZINE 2019 060708 Vol. 28

아주비전 4.0 5대 전략 자기주도형 Hi-interactive 교육혁신 파란학기제

2019년 아주대는 '연결지성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학'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교육과 연구, 캠퍼스 문화 등에 대한 지향과 다짐을 담은 아주비전 4.0을 선포했다. 아주비전 4.0의 5대 전략 중 하나인 자기주도형 Hi-interactive 교육혁신의 대표적인 프로그램, 파란학기제. 학생주도 교육과정을 선도하는 파란학기제를 조명한다.

AJOU
VISION
4.0

아주비전 4.0
5대 전략

연결지성
기반 구축 및
문화 확산

자기주도형
Hi-interactive 교육혁신

High-impact
연구허브 구축

- 학생 주도 교육과정 확대
- 파란학기 Extreme
- Active & Adaptive Learning 확산
- 공유 가능한 첨단 공유 환경 구축
- 신입생·유학생 정착 프로그램 및 Academic Advisor 운영

공유가치 창출
오픈캠퍼스 실현

산학협력
혁신 생태계 조성

자신의 틀을 깬다 - 파란학기제

아주대학교는 지난 2016년 전국 대학 최초로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도전 과제를 설계하고 실천해 학점을 받는 '파란학기제 - 아주 도전학기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정형화된 대학 교육의 울타리를 벗어나기 위한 아주대의 도전이 '파란학기제' 프로그램에 집약됐다.

파란학기제는 아주대의 상징색인 '파란'색에서 따온 이름으로 알(자신의 틀)을 깬다는 '파란(破卵)'과 이런 시도를 통해 사회에 신선한 '파란(波瀾)'을 일으키자는 뜻을 지녔다. 학생들은 인문과 문화·예술, 봉사, 국제화, 산학협력 등 모든 분야에서 제한 없이 도전과제를 설계하고 학교나 교수가 제안한 프로그램을 선택하거나 수정해 신청할 수 있다. 도전과제를 성실히 수행한 경우 3~18학점의 정규 학점을 받는다.

지난 2016학년도 1학기부터 7학기째 이어지고 있는 파란학기제는 올해 1학기까지 총 201개 팀, 706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그동안 ▲경주용 자동차 제작 및 국제대회 참가 ▲수화를 통한 심리상담 ▲아주대 3D 스트리트 뷰 제작 ▲위험 감지용 드론 제작 ▲패션 브랜드 제작 및 론칭 ▲드라마 기획, 제작 및 배급 ▲대학생 단편영화 제작사 창업 ▲IT 활용 제로 에너지 주택 모델 개발 ▲인디게임 제작 및 출시 등 다양한 주제로 파란학기를 수행했다. 올해 1학기에는 총 20개팀, 64명의 학생들이 파란학기를 통해 자신들의 도전 과제를 수행 중이다.

아주대만의 특별한 프로그램 파란학기제를 통해 학생들이 일으킨 물결은 이제 성공적인 취·창업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 해결이라는 영역까지 도달하고 있다. 지난 2019년 1학기 파란학기제 ‘훌륭한 뱃사공상’ 수상팀 ‘청사진 협동조합’ 팀장 김태산 학생과, 파란학기제를 주관하는 대학교육혁신원 강경란 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글 박예슬 사진 김성재

아주인이 일으킨 파란 물결, 세상을 적시다!

“학생이라는 한계 넘게 해 준 파란학기제”

김태산

‘청사진 협동조합’ 팀장
미디어학과 15



지난 2019년 1학기 파란학기제에서 대상인 ‘훌륭한 뱃사공상’을 수상한 ‘청사진 협동조합’ 팀. 이들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9 청사진 아이디어톤(아이디어 Idea+마라톤 Marathon)’을 열었다. 이번 대회는 전국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의 청년 150여 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처음엔 우려의 눈길을 보내는 이들이 많았다. 대학생들이 이 정도 규모의 대회를 성공적으로 주관할 수 있을까? 이렇게 규모가 커야 할까? 의문이 떠났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큰 규모의 ‘집단지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수록 좋다고 생각했죠. 물론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학교 안에 저희를 믿고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고, 프로젝트를 지원해 주신 수원시 측도 청년들이 사회적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섰다는 데 큰 관심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이 힘이 됐습니다.”
팀은 국어국문학과, 심리학과, 경영학과, 미디어학과 등 4개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구성됐다. 우선은 정말로 ‘할 의지가 있는’ 팀원을 모으는 것이 중요



“
다양한 학과 친구들과 만나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면서 완전한 구성체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아주대의 슬로건인 ‘커넥팅 마인즈(Connecting Minds)’, 연결지성과도 이어지는 부분이죠.”

했다. 평소 친분이 있는 학생끼리가 아닌 정식 공고를 통해 팀이 꾸러졌다. “다양한 학과 친구들과 만나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면서 완전한 구성체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팀원들과 상호작용이 잘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수님들, 교직원 분들과 함께 진행하며 내실을 다져갈 수 있었습니다. 아주대학교의 슬로건인 ‘커넥팅 마인즈(Connecting Minds)’, 연결지성과도 이어지는 부분이죠.”
학생들이 학교 정규수업만을 통해 자신의 꿈을 펼치고 진로를 찾기에는 아무래도 제약이 따른다. 파란학기제는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도전 과정을 설계하고 실천해 학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아주대의 상징색인 ‘파란’색에서 따온 이름으로 알 (자신의 틀)을 깬다는 ‘파란(破卵)’과 이런 시도를 통해 사회에 신선한 ‘파란(波瀾)’을 일으키자는 뜻을 담았다. 참가자들은 인문, 문화·예술, 봉사, 국제화, 산학협력 등 모든 분야에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파란학기제는 대학생 신분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학사 제도입니다. 재학 중 다양한 활동을 하려면 한계가 있었어요. 수업도 받아야 하고 ‘스펙’도 쌓아야 하고, 현실의 장벽이 높죠. 파란학기제는 그런 부분에서 부담을 덜면서 하고 싶었던 일에 도전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진심으로 해보고 싶은 활동이 있다면 파란학기제를 통해 꼭 이뤄냈으면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세요!”

강경란 대학교육혁신원장

매 학기 수많은 학생들이 파란학기제를 통해 자기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실행에 나선다. 이들의 열정을 보면 ‘요새 학생들은 수동적인데다 비슷비슷한 ‘스펙’에 매몰된 경향이 있다’는 못 사람들의 편견이 무색할 정도다. 파란학기제가 이들의 숨은 열정을 일깨워 끌어당겨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강경란 대학교육혁신원장은 다음과 같이 답한다.

“파란학기제는 자신이 하고 싶은 바가 분명하고, 열정으로 끓고 있는 학생들이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등을 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신이 뭘 해야 할지 모르거나 주눅 들어있는 친구들도 있고, 파란학기제는 원래 능동적이었던 학생들이 목표를 이루도록 돕고, 조금 수동적이었던 친구들은 성취를 통해 자신감을 얻을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학생들은 파란학기제를 통해 눈에 띄는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 실제로 파란학기제를 통해 ‘창업’이라는 꿈의 기반을 다진 이들도 있고, 사회적 문제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 이들도 있다. 그러나 파란학기제는 학생들에게 성과를 강요하지는 않는다. 본래 방향하는 대학생들에게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시작됐기 때문이다.

“도전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파란학기제는 지금 당장은 안 될 것 같아도 학생이 힘을 내서 해 보면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팀들에게도 기회를 줍니다. 학교에서 추구하는 건 학생들이 뭔가를 해 보는 것,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실패는 학생의 특권입니다. 성과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죠.”
파란학기제에 도전하는 팀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같은 과 학생들만 모이기 보다는 서로 다른 전공을 가진 학생들이 모이는 경우가 많다. 접점은 소학회, 동아리 등 다양하다. 한 전공에서 기획하고 실행하기 힘든 프로젝트가 많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파란학기제를 통해 자연스럽게 ‘연결지성’을 실천합니다. 60~70%는 다른 과 학생들끼리 모여서 프로젝트를 실행하지요. 다양한 역량을 갖춘 학생들이 모여 팀을 꾸리고, 4개월간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훈련을 하다 보면 아주비전 4.0이 추구하는 ‘고강도 상호작용(High Interactive)’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배에 타게 된 학생들은 파란학기제를 통해 다양한 문제, 갈등과 부딪히고 이를 해결하는 능력을 쌓아가게 된다. 파란학기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강경란 원장은 강조한다. 그러면서 팀원들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 전문가인 지도교수와의 상호작용도 잊지 말라고 덧붙인다.

“목표를 세웠으면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세요. 학생들이 ‘나 이만큼 배웠고, 재밌었어요’라고 말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난 이만큼 이뤄냈어요. 그런 내가 자랑스러워요’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또, 실패는 오히려 더 자기를 성찰할 수 있게 하고 부족한 걸 깨닫게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세요. 파이팅!”

아주대학교만의 특별한 프로그램 파란학기제를 토양삼아 두 청년이 세상에 나왔다. 웹드라마 제작사 밤부네트워크(BAMBOO NETWORK)의 정다빈, 송윤근 공동대표가 그 주인공이다. 스타트업이지만 단숨에 업계 5위 규모로 훌쩍 컸다는 밤부네트워크. 놀랄 만한 성장의 비결은 무엇일까?

글 박예슬 사진 김성재

‘아마추어’ 한계 넘게 한 파란학기제

정다빈, 송윤근 공동대표는 지난 2016년 파란학기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창업’이라는 뜻을 품고 있었다. 휴학을 하고 돈을 모아 영상 콘텐츠 업계에 뛰어들어 보겠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던 찰나에 파란학기제가 막을 열었다. 학점도 따고 콘텐츠 제작 지원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당시 웹드라마라는 용어가 태동하던 시기였죠. 시장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어요. 방송사에서만 만들던 ‘드라마’라는 영역이 아마추어 영역까지 넘어온 것이죠. 해 보면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아이디어를 표현할 통로가 필요했는데, 그게 웹드라마였던 것 같습니다. (정다빈)”

두 사람이 밤부네트워크를 창업한 지는 올해가 2년째다. 그리고, 거창하게 들리겠지만 지금은 업계 5위 기업이 됐다. 2년이라는 시간 전에는 개인사업자 기간 3년이 있었다. 법인 설립을 위한 도약 같은 기다림이었다. 수입원이 일정하지도 않았고 열정만으로 달려왔던 힘든 시기였다. 그 힘든 시기가 두 사람에게서는 성장의 토대가 됐다. 또한 빅데이터를 토대로 밀레니얼 세대, Z 세대로 일컬어지는 ‘요즘 젊은이들의 니즈를 빠르게 읽어낸 것도 주효했다. 이들은 단순히 ‘새로운 것’, ‘좋은 것’을 넘어서 ‘어떤 콘텐츠가 수익이 될까’를 고민했다고 한다.

“회사 이름이 밤부네트워크잖아요. 각 대학교 ‘대나무숲’ 페이스북 페이지를 기반으로 해서, 그 페이지에 올라왔던 유명 사연들을 영상으로 만들면서 시작했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젊은 세대가 뭘 좋아하는지 다 확인하고 시작한 거죠. (송윤근)”

대학생 신분으로 시작한 사업인지라 어려움은 많았다. 기업의 신뢰를 얻어내는 일이 관건이었다. 처음부터 이 과정을 하나하나 밟아나가야 했다. 대학생 청년 창업자 대부분이 ‘0’의 상태로 시작한다. 이 기간은 시련과 증명의 반복 과정이었다. 한 프로젝트를 수주해 성공적으로 마쳤다 해도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이들에게 지난 5년은 자신들을 ‘증명’하는 과정이었다.

“적은 예산이지만 저희가 더 열심히 해 보자는 마음가짐이 있었습니다. ‘돈을 벌자’는 것보다 포트폴리오를 쌓아나간다는 느낌으로 과감하게 투자를 많이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그게 저희에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정다빈)”

일감이 꾸준히 들어오지 않는 기간을 버티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었다고 두 사람은 입을 모은다. 창업 초기에는 팀을 꾸려 버티는 기간이 따르기 때문이다. 또한 아이템과 아이디어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만으로 되는 일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준비되지 않은 창업은 반대해요. 창업을 쉽게 생각하는 친구가 많아요. 실행력과 끈기가 있어야 합니다. 창업은 인고의 과정이에요. 이를 버틸 수 있는 친구만 창업했으면 합니다. 내게 이러한 과정을 감당할 수 있는 정신력이 있나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정다빈)”

현업에서는 나이도, 학생이라는 신분도 중요하지 않다. ‘프로 대 프로’로 붙는 것이다. 두 사람에게 아주대의 파란학기제는 현업에 과감히 뛰어들 수 있는 소중한 기반을 만들어줬다.

“아마추어 티를 벗을 수 있는 기반을 파란학기제가 만들어 주었습니다. 기획안을 클라이언트에게 보내고, 작가들과 소통하고, 콘텐츠를 만드는 제작 시스템을 세우고...이런 수많은 과정들이 처음에는 어설피고 민망했어요. 그런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경험을 파란학기제가 준 거죠. (정다빈)”

지난 5년간 쉼 없이 달려온 두 사람에게서는 목표가 있다. 거대한 매출 지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다. 청년 창업자들의 롤모델이 되고, 업계 자체를 변화시키고 싶다는 꿈이다.

“한국과 세계를 잇는 ‘파이프라인(Pipe line)’을 만들고 싶습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빛을 발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한국 청년들이 세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일 앞단에 있는 ‘등용문’ 역할을 하는 콘텐츠 기업으로 밤부네트워크를 키워가고 싶습니다. (정다빈)”

“영상 콘텐츠를 값싸게 제작하거나, 스태프들이 ‘열정페이’에 시달리는 경우도 아직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도 젊은 대학생이나 신진 창작자 위주로 팀을 꾸려 함께 일하려고 합니다. 그들과 함께 좋은 환경에서 좋은 콘텐츠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송윤근)”



정다빈
송윤근
밤부네트워크 공동대표

밤부네트워크(BAMBOO NETWORK)는

웹드라마 제작사. 전 구성원이 20대로 이뤄졌으며 웹드라마 제작·배급, 국제 웹시리즈 영화제 출품·수상, 바이럴 광고 영상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미디어 기반의 채널이 되고자 하며, 20대를 대표하는 채널이 되겠다는 당찬 포부를 가지고 있다. 대표작으로 <네 대대로 하는 연애>, <어서 오세요, 마녀 삼점 파일럿> 등이 있다.

AJOU POWER 2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작지만 강한 대학, 젊지만 큰 대학

아주대학교의료원의 성장세가 놀랍다. '트리플 5(Triple 5)'라는 경영목표 달성에 이어 아주대병원엔 최근 미국 <뉴스위크>가 선정한 '세계 최고의 병원' 중 하나로 뽑혔다. 이 가운데 아주대 의과대학의 날갯짓 역시 기대되는 바다. 인간존중(人間尊重), 실사구시(實事求是), 세계일가(世界一家)—아주대의 교육 이념을 배경으로 의과대학은 어떤 인재를 선발하며 양성하고 있을까.

정리 박예슬 사진 이대원

능력과 인성을 갖춘 의사,
세계를 무대로 활동할 수 있는
리더를 키웁니다!

유희석 아주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그간 아주대학교의료원의 가파른 성장세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의료원 장으로서 '트리플 파이브(Triple 5)'라는 경영목표를 제시하고 달성하기도 했는데, 이 같은 성장세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전 교직원의 노력과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의 아주대의료원의 성장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지난 2017년 신년 하례식에서 '트리플 파이브(triple 5)'라는 경영목표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외래환자 일평균 5,000명, 의료수입 5,000억 원, 의료이익률 5% 달성이었고, 그해 대부분의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당시 경영자로서 조직의 목표 설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의료원의 잠재력과 단합된 힘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 번 확인한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2019학년도 올하는 외래환자 일평균 5,500 명, 의료수입 6,000억 원, 의료이익률 5%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25주년을 맞는 아주대의료원의 역사를 살펴보면, 전국 의료기관 어느 곳보다 우여곡절과 시련이 컸습니다. 지난 1994년 아주대병원 개원 당시 전후로 대형 종합병원이 잇달아 문을 열어 기존의 대형병원뿐 아니라 신생 대형병원과 경쟁했으며, 개원 후 얼마 되지 않아 1997년 IMF 경제위기, 2000년 의약분업 사태, 학내 분규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전 교직원의 헌신과 노력, 협동심, 지혜로 극복해 나갔습니다.

지난해 아주대 의과대학이 30주년, 간호대학이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학생들을 위해 아주대 의과대학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그동안 의과대학·간호대학은 '작지만 강한 대학, 젊지만 큰 대학'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새로운 미션은 '구성원의 꿈을 키우며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교육 공동체'입니다. 이는 '인성과 소양을 갖춘 의료인'을 양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ACME(Ajou Curriculum for Medical Excellence)2021 교육과정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의과대학은 시뮬레이션 센터 조성 및 송재관 실험실(Wet-Lab)을 증설해 부족한 교육·연구공간을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 학생기숙사 착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기숙사가 완공되면 의과대학·간호대학 학생들이 학업에 보다 전념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우수 학생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간호대학은 20주년을 맞아 오랜 염원이었던 홍재관을 신축하였으며, 때마침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Top 3로 최상위 평가를 받아 양적·질적으로 모두 최고 수준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또 올해 6월 보건복지부로부터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6억 원을 지원받아 시뮬레이션 센터 확장과 센터 내 교육장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간호대학은 현재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에 안주하지 않고, 교수 연구동력 강화·학생 역량 강화 추진 등 장·단기 발전전략 수립을 계획 중입니다. 의과대학·간호대학은 앞으로도 미래 의학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내실 강화에 더욱 주력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AI)으로 대체할 수 없는 창의적이고 훌륭한 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아주대 의대에서는 어떠한 인재를 뽑고 있나요? 또, 아주대 의대가 원하는 인재상이 되기 위해서 학생들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아주대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조언을 주신다면.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은 ▲의사의 소명감과 책임감을 고민하며 ▲자기개발을 게을리하지 않고 ▲학습 역량과 창의성을 갖추고 ▲희생, 협력, 겸손의 품성과 인문 사회적 소양을 가진 ▲국제적 리더십의 잠재력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은 국내 최초로 커리큘럼에 인문사회의학 교육과정을 정규과정에 도입하는 등 의과대학 인성교육의 모범사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의학은 단순한 지식의 습득을 넘어서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건전한 윤리관과 사명감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은 학년당 학생 정원 40명 대비, 교원 수는 450명으로 1:1 교육이 가능할 정도로 최고의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의료 질 평가에서 최상위 평가를 받고 있으며, 국내 최고의 권역외상센터·권역응급의료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아주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최상의 임상실습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미래 보건지료를 책임질 능력과 인성을 갖춘 의사, 세계를 무대로 활동할 수 있는 리더가 되기를 원한다면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에 도전하기 바랍니다.

날마다 새 역사를 써가는 아주대학교병원

1994년 문을 연 아주대병원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제적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의학 교육의 선도 역할을 하는 아주대 의과대학이 견인하는 아주대병원의 강점을 집중 조명한다.

뉴스위크 세계 100대 병원 선정

아주대병원은 세계적인 시사주간지 미국 <뉴스위크 (Newsweek)>가 실시한 '세계 최고의 병원(World's Best Hospitals 2019)'에서 세계 100대 병원 선정 및 국내 병원 6위를 차지했다. 특히 평가점수 89.7점을 획득해 국내에서는 서울 소재 병원들에 이어 6위를 차지했다. 이는 비서울 소재 병원 중 가장 높은 순위일 뿐만 아니라 수도권 내 유수의 병원을 앞선 성적으로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병원임을 다시금 입증받았다. 미국 <뉴스위크>가 주관하고 독일 시장통계조사기관 스타티스타(Statista)가 실시한 이번 평가조사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진행됐으며, 평가 항목별 반영 비율은 전문가 의견(해당 국가50%, 외국 5% 총 55%), 환자만족도(15%), 의료성과지표(30%)이다. 다수 의료전문가 의견을 취합하기 위해 수만 명의 의사, 병원 관리자 및 기타 의료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됐다.

아주대병원은 2017년 JCI 3차 국제인증 획득, 2018년 보건복지부 의료질평가에서 '1-가' 등급 획득(비서울 소재 병원 중 유일), 2018년 국가고객만족도(NCSI) 평가에서 의료기관 중 6위 등을 차지해 국내외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표준화된 병원임을 평가받은 바 있다.



앞서가는 연구중심 병원

아주대병원 개원 이래 가장 괄목할 만한 발전 중 하나는 연구 분야다. 1996년 2월 국내 최초로 의료원 내 의과대학과 동급 기관으로 '의과학연구소'를 개소하는 등 연구개발에 주력한 결과, 2015년 BK21+, MRC, SRC 그리고 연구중심병원 등 4개의 대형 국가과제를 동시에 수주해 연구 분야의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지난해에는 연구 분야에서 사상 최고의 성과를 이뤘다. 연구비를 약 448억 원 수주하고, 특허출원 90건, 기술이전 16건을 이뤘다. 올해는 3주기 연구중심병원 재지정과 함께 '뇌질환융합연구센터'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기초의과학분야 연구기관(Medical Research Center, MRC)으로 선정돼 향후 7년간 연구비 94억 5,000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박래웅 교수팀은 대규모 국책사업인 산업동상자원부 분산형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사업단으로 선정된 것을 비롯해 빅데이터 관련 주요 국책사업 2건에 잇달아 선정된 바 있다. ④

바이오헬스산업 발전의 요람 '개방형 실험실'

아주대병원은 7월9일 홍재관 첨단의학RD센터에서 보건복지부 지정 '개방형 실험실'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문을 열었다. 보건복지부 개방형 실험실 구축 사업은 우수한 연구 역량 및 인프라를 보유한 병원이 고가의 연구시설 구비 여력이 없는 보건의료분야 창업기업에게 실험실을 개방하는 것이다. 개방형 실험실에 입주한 창업기업은 실험실 내에 구축되어 있는 공간과 장비, 시설을 이용하고, 임상과의 협력이 가능하다. 특히 아주대병원의 경우 Wet-Lab 기반 실험 전문 연구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향후 아주대의료원 실험동물연구센터, 의료정보 빅데이터센터, 바이오뱅크(인체유전자 자원센터) 등 창업기업이 보유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병원 내 첨단 의료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될 계획이다. 이번에 개방형 실험실에 입주하는 기업은 에이템스, 젠센, 엠디헬스케어, 지노바이오, 스킴스바이오, 아크에이르, 램미, 한국씨알오, 셀앤바이오, 해피팜협동조합 등 창업 7년 이내의 보건의료분야 창업기업으로, 앞으로 아주대병원과 이들 창업기업 간의 활발한 협업 활동이 주목되고 있다.



AJOU POWER 3

산학협력단

사회 변화에 맞춘 창의적 협력 주도

아주대의 산학협력단은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아주비전4.0과 연계성을 강화해 한층 더 세밀해졌다. 지난 2019년 2월, 아주대의 역량 분석과 더불어 특화분야 산업동향분석, 정부, 지역사회, 산업체의 발전전략 분석까지 진행해 향후 10년간 지속하게 될 산학협력 발전계획을 수립했다. 아주대 산학협력이 품고 있는 비전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 오성근 산학부총장 겸 산학협력단장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자.

정리 박예슬

“해외 취업과 창업, 가족기업의 해외진출 연계 등 다양한 글로벌 산학협력을 추진합니다”

오성근 산학부총장 겸 산학협력단장

CONNECTING MINDS



아주대는 산학협력 사업 성과의 확산을 위해 권역 내는 물론 전국권역 간 대내외 산학협력 협업·연계 시스템을 구축했다. 아주대는 한국지역대학연합(RUCK) 8개 대학 LINC+사업단과의 공동사업을 비롯한 수원시,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관내 대학과의 협업을 통한 산학협력사업 등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 같은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들을 이뤘을까?

전 세계 10개국 13개 도시에 글로벌 산학협력 거점센터 구축

“재학생들의 해외 취업과 창업, 가족기업의 해외 진출 연계 등 다양한 글로벌 산학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글로벌 산학협력 거점센터(Greative Cooperation Center)를 전 세계 10개국 13개 도시에 구축했습니다. 글로벌 산학협력 거점센터를 통해 학생 교류 및 교육, 가족회사의 판로 개척 및 수출 계약과 기업 지원, 해외 기술 이전 등의 사업을 추진, 실적을 창출했습니다. 대표적인 실적은 최근 있었던 ‘2019 CIS·유럽 경제인대회’에서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과 키르기스스탄 및 독립국가연합(CIS) 지역기업 간의 협약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더불어 아주대는 올해 LINC+ 수도권 협의회와 한국지역대학연합(RUCK) 주관 대학으로서 8개 회원대학의 LINC+사업단(가톨릭관동대, 경남대, 경희대, 계명대, 성균관대, 아주대, 전주대, 한남대)과 가족회사 등 총 57명으로 구성된 ‘LINC+ 대학연합 경제사절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17일~19일까지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서 열린 ‘2019 CIS·유럽 경제인대회’에 공동으로 참가하여 이 대회 1:1 비즈니스 상담회를 통해 437만 달러 규모의 수출 활로 개척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아주대는 교육부의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선정에 이어 고용노동부 주관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양성 훈련기관’에 선정됐다.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사업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 주관하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이하 LINC+) 사업’의 일환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융합지식과 4C능력(비판적 사고력, 소통능력, 창의력, 협업능력)을 갖춘 문제 해결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초점을 둔 사업이다.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은 고용노동부가 4차 산업혁명 신산업 분야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갖춘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5수준 이상의 고급 훈련을 원칙으로 한다. 전공자뿐만 아니라 비전공자도 참여할 수 있으며 가족기업 등에 취업 연계지원 사업이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 선도 인력 양성

“아주대는 ‘IoT 및 인공지능, 블록체인’ 2개 분야에서 이공계 대졸 및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훈련은 교육생이 복합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총 훈련 시간의 25% 이상을 과제(프로젝트) 실습에 편성해 보다 실무적인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이 특징입니다. 사업 운영부서인 산학협력단 기업지원센터는 이외에도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반도체,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훈련 운영 노하우와 역량 있는 강사 풀을 보유하고 있어 취업 양성과정은 물론 다양한 재직자 과정, 사업주 위탁과정 훈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사업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 선도 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해 지역 인재의 취업 활성화와 지역 신성장 동력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대학과 지역, 산업체 사이의 경계를 허물다

'AJOU Valley'로 더 넓은 세상에

아주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핵심 비전은 산학협력 혁신 생태계 'AJOU Valley' 조성이다. 'AJOU Valley'는 대학과 지역, 산업체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 연결해 더 넓은 세상에서의 경험과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글로벌 산학협력 혁신 생태계를 뜻한다. LINC+사업을 포함한 산학협력 선도사업들을 진행하며 생태계의 기반을 다진 아주대는 앞으로 AJOU Valley의 중심으로서 산학교육·산학연구·지역사회공헌 분야의 사업을 통해 연결지성 리더를 양성하고 사회적 공유가치를 창출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선(先)체험 후(後)학습으로 배운다, 주요 교육 프로그램

자신의 전공 분야 실무를 먼저 경험해보고, 후에 학문을 배우는 현재 1~2학년 대상 전공기업 체험형 '아주비전 교육과정'과 문제 해결형 프로젝트 교과 'Adventure Design'이 매 학기 개설되며 지속적인 교과 개발을 통해 대학 전체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학생들이 고학년이 되어서야 실무를 경험하고 뒤늦게 전공과 적성, 배움과 현장의 불일치를 깨닫게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함이다.

그간 아주대는 LINC+사업을 통해 대학 교육의 발전을 이끌었다. 아주대의 현장실습 이수 학생은 2016년 1,021명에서 2018년 1,083명으로 증가(장기 현장실습은 176% 증가)하여 현장실습 참여 학생 비율 전국 4위를 달성했다. 캡스톤디자인 또한 3,4학년 재학생 42% 이상이 수강하고 있다. 창업 교과목은 매년 2,000명 이상 이수하고 있으며, 중앙일보 대학평가 창업교육 참여 학생 비율은 전국 1위를 달성했다. 양적인 증가뿐 아니라, 질적인 관리도 강화하여 'Early-Bird 현장실습'을 진행한 학생들이 해당 기업의 제품 개발에 기여하고 창업동아리 학생들이 '대학 창업유망팀 300 경진대회'에서 24위를 차지하는 등 실질적인 교육 성과를 보이고 있다.

교내 우수 기술의 등을 밀어주는, 성과 UP! 연구 프로그램

아주대는 사전 기술수요조사를 진행하고 기술이전 사업화 실현가능성을 주요하게 평가하여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를 지원하고 있다. 2017년 11개, 2018년 7개 과제를 지원한 결과 기술이전 12건 44억, 특허 13건, 논문 8건 등 우수한 지식재산권 창출과 기술사업화 성과를 거뒀다. 또한, 매년 경기도 대비보조금을 유치하여 경기도 내 산업체와의 공동연구를 함께 진행해 지역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기술이전 수입료 또한 2018년 21억 3,696만 7,777원으로 전국 10위의 성과를 보였다. 기술지주회사를 통한 투자재원 조달(2018년 5개 N4U자회사 150억 투자유치)로 기술사업화 사업의 지속가능 토대를 마련하기도 했다. 앞으로 아주대는 산학협력의 4대 특화분야 ICC 확대를 통해 대학의 우수 기술을 고도화하고 상품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기(氣) 살리기, 상생하는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

아주대는 ▲지역사회 노동시장 확대 ▲지역사회 공헌활동 ▲지역사회 정보 확산 ▲지역사회 발전협력 등 지역주체들 간의 유기적 협동관계를 기반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산업분야 고숙련 재직자 대상 산학협력교수양성 사관학교, 초등생 대상 드론교실 등 지역사회·산업체 구성원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환경정화 봉사활동, 전통시장 소상공인 지원 사업 등 지역 사회·산업 발전을 위한 공헌 사업을 진행했다.

지역 내 미취업자 대상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교육으로 2개년 간 71명을 취업연계 하였으며, 아주대 학생들로 구성된 청년코치단이 제품 개발과 마케팅을 지원하는 '행복한 권선시장 기(氣) 살리기 프로젝트'로 지역 시장의 이미지 제고와 지식재산권(상표권 2종, 특허 2종) 확보에 공헌하기도 했다. 또한, 도시재생 RCC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캡스톤디자인, 포럼 등)을 진행하며 지역사회 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앞으로 지역 사회 기반 RCC를 확대해나감에 지역사회와 산업에 맞는 상생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대학의 사회적 공헌(ESI) 지수 향상을 통해 경제·사회적으로 기여한 부분에 대한 평가와 개선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

Early-Bird *

Early-Bird 현장실습 *

일반 계절제 현장실습보다 1개월 앞서 학생 모집과 실습기업 매칭이 진행되어 실습에 필요한 사전 교육을 시행, 질 높은 현장실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아주대만의 차별화된 현장실습 프로그램

교직원 마이크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달립니다!

LINC사업팀장 임군진



누구신지요?

1992년 아주대학교에 입학해 2019년 현재 총 28년차 근속하고 있습니다. 기획처, 입학처, 대학평가본부, 공과대학교학팀을 거쳐 2011년부터 현재까지 산학협력단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2014년 LINC사업 수주 이후 2017년 LINC+사업 연속수주를 통해 사업단 업무를 겸해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부에서 경제학을 전공했고, 대학행정관리전공 교육학석사를 취득한 후 HRD(인적자원개발)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여가시간에는 주로 장시간에 걸친 독서와 음악 감상, 그리고 '멍 때리기'를 즐기며, 세상에 하나뿐인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두 아들을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무엇 하시나요?

2011년 산학협력단 전보 이후 산학협력단 운영체제와 각종 제도 개편 및 대형 정부재정지원사업 수주·운영 등의 산학기획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2014년 LINC+사업 수주 이후 LINC사업팀장을 맡아 2017년 연속수주에 성공한 현행 LINC+사업 추진과 성과관리의 실무책임자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산학협력단에서 진행하는 산학협력교육, 지역·기업지원 및 기술이전·사업화 등 산학협력분야의 정부부처(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등) 특별목적 재정지원사업 등 전반에 걸친 사업추진 및 관리업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LINC+사업 등 아주대 산학협력의 비전을 소개해 주신다면?

아주대는 대학 강점분야를 4대 특화분야로 확대하여(바이오·헬스케어, 신재생에너지, AI·빅데이터, 스마트 모빌리티), 향후 10년간의 새로운 산학협력 발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최근에는 교육부의 'LINC+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사업' 선정에 이어 고용노동부 주관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양성 훈련기관 지원 사업'에도 선정되어 경기권역 4년제 대학 중 유일하게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지원 사업 2관왕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 선도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해 지역 인재의 취·창업 활성화와 지역 신성장 동력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뭣다한 이야기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경제 환경을 고려했을 때, 우리 아주대학교를 포함한 대학 사회의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 고도화된 산학협력 활성화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대학의 운영체제는 물론, 행·재정적 지원과 교내 우수 인재들의 산학협력 전문 역량 강화에 보다 힘써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환경 변화와 전문 영역 확산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숫자로 보는 아주대 LINC+



바람 속에 풍선같이
떠오르는 내 몸을 느끼고
세상에 따스한 물을 주시는
당신 숨결로부터
내가 매일 투명한 눈빛으로
다시 살 수 있게
숲과 나무 바라볼 틈을 가지게
숲속 작은 꽃, 나무앞에서도
생의 값진 무언가를 배우게

내가 모르는 것을
하나라도 더 깨우치며
바람결, 숨결, 물결.
당신이 주신 것마다 느낀 걸을
잠시 음미할 수 있으리

잠시 멈춰선 발길 신현림

바다로 가는 마음으로
연분홍 장미와
새를 바라보는 고요함으로

다시 찾은 열쇠를 켜 기쁨으로
당신이 부드럽게 연주하는
노을의 음악을 듣는
말랑말랑한 귀로
잠시 멈춰 선 발길로
쉬어가리 다시
사는 힘을 가져 보리

Apple Travel

<사과 여행(Apple Travel)>은 사과 작업 시리즈다. 감동하거나, 특별히 애착하거나, 추억이 있거나, 역사적으로 뜻깊은 자리를 찾아 사과가 바라보는 세상과 존재의 성찰을 담았다. 사과는 나와 너의 상징이다. 던져진 존재로서 제사장처럼 제의를 치르듯 풍요를 기원했다. 그리고 길과 길에 스며있는 수많은 전설과 신화. 시와 사람의 이야기와 기억들을 일깨우려 했다. 스스로 다시 깨어나고, 다시 태어나고 싶은 여행, 사랑을 담은 여행이고 생명의 중요성을 되살려내고 싶었다. Deoksugung.Korea @ Shin HyunRim c-print 2014

신현림
시인, 사진작가

경기 의왕 출생이다. 아주대 국문학과 졸업 후, 상명대 디자인대학원에서 피인아트를 전공·졸업했다. 현대시 학으로 데뷔. 전방위적인 작가로, 시집 <지루한 세상에 불타는 구두를 던져라>, <세기말 블루스>, <해 질녘에 아픈 사람>, <침대를 타고 달렸어>, <사과꽃 당신이 올 때>를 펴냈다. 사진작가로 <아! 我, 인생 천란 유구무언>, <사과, 날다>, 일본 료토게이본사 서점과 갤러리에 채택된 사진집 <사과여행>이 있다.

“

20대 초반이라는 시간은 변덕스러운 때다.
어떻게 20대 초반에 자기가 뭘 잘하는지,
어디에 재미를 느끼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겠나.
만약 지금 자기의 적성을 못 찾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절망적이고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있다면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다.
나도 그런 과정을 겪었고, 모든 사람이 그렇다.

”



아주대 노명우 사회학과 교수가 지난해 서울 은평구에 문을 연 '니은서점'은 특별하다. 독서의 즐거움을 나누고 싶어 꾸렸다는 니은서점은 단순히 책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닌, 사유와 지식을 공유하는 공간이다. 사람들이 점점 책을 읽지 않는 시대, 그가 아주인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노명우 교수가 직접 고른 천여 권의 책이 들어찬 이 공간에서 그의 답을 들어보았다.

글 박예슬 사진 김성재

공유서재가 있는 서점, 니은서점

노명우

사회학과 교수

니은서점에 있는 책은 모두 직접 고른다고 알고 있다. 어떤 기준으로 책을 선정하는가?

내가 읽고 좋았던 책, 읽으려고 하는 책, 두 종류다. 규모 때문에 천여 권 밖에 수용을 못 하는데, 내가 다 읽고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는 책으로만 서가를 구성하고 싶다. 내가 없을 때 사람들이 아무 책이나 뽑아서 사도 후회하지 않을 책으로만 구성된 서가 말이다. 그런 서점을 갖는 것이 목표다.

점점 사람들이 책에서 눈을 돌리고 다른 재미있는 것들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다. 평범한 한국인과 대학생이 책 읽기를 좋아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책에 대한 위선을 걷어내고 솔직해져야 한다. 한국인은 독서를 싫어한다. 그런데 마치 책을 좋아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한국인이 왜 독서를 싫어할까? 한국인 대부분은 끔찍한 독서 경험을 갖고 있다. 한국인이 '책을 읽었다'고 하면, 자신의 지적 만족이나 즐거움을 위한 경험보다, 대학에 가기 위한 학습의 경험이 많다. 이를 사람들은 '독서'라고 생각한다. 아이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한국인 대부분이 그런 독서 경험을 한다. 그러니 독서를 지겹다고 느끼고, 대학에 오면 책을 읽고 싶지 않다고 생각한다. 연령대별로는 그나마 20대까지는 책을 읽는다. 그러나 나이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한국 사람들은 책을 읽지 않는다. 부모는 자녀에게 책을 읽으라고 하지만, 정작 자기들은 책을 읽지 않고 TV, 인터넷, 스마트폰만 들여다본다. 그래서 자녀에게는 '책을 읽으라'는 선의에서 나온 충고가 그저 '잔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젊은 친구들이 책을 좋아하지 않는 모습은 한국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이번에는 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다. 많은 책을 썼다. 책을 쓴다는 것은 자신을 표현하고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일 것이다.

독자가 어떤 책을 선택해 읽게 되면 그것이 바로 '상호작용'이다. 독자가 읽어준다면 그 책의 삶은 계속 이어진다. 그러나 독자가 읽어주지 않으면 그 책은 생명이 끝난 것이다. 원고는 혼자만의 작업이지만 책은 다르다. 책을 쓰는 것은 외로운 과정이다. 원고를 쓰는 동안은 '이 책을 누가 읽을까'하는 불안감에 시달리기도 한다. 또,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을 때 내 용에 공감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도 이 책에 담긴 내용을 중요하다고 생각할까' 이런 고민이 든다. 출판사에 원고를 보내기 전까지만 해도 많은 고민을 한다. 모든 글이 그렇지만 고치면 고칠수록 좋아진다. 하지만 원고를 언제까지나 마냥 붙들고 있을 수만은 없다. 출판사로 원고가 넘어가는 순간부터 주인은 내가 아니다. 그때부터 책은 내 손을 떠나 독자적인 생명을 갖는 것이다. 그리고 독자와 만나게 된다.

요즘은 젊은 학생들은 인터넷, SNS를 통해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특정 SNS를 사용하는 것이 자신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이 사실을 모르는 채로 무분별하게 SNS를 사용하는 것은 조금 우려된다. SNS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은 아니다. 그러나 해당 미디어가 가져다줄 수 있는 폐해에 대한 고려 없이 '그냥' 사용한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인스타그램으로 예를 들어보겠다.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며 우리는 변한다.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는 일은 쉽다. 그런데 인간의 고유 가치 중에서는 사진 등으로

시각화할 수 없는 것도 굉장히 많다. '행복'을 어떻게 사진으로 남길까?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사진에 의존해 행복을 표현하려고 하면 행복이 자꾸 물질적인 것이 된다. 추상적인 행복을 사진으로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 '나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증거를 남기려고 한다. 좋은 카페에 가고, 비싸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물론 이런 것들도 행복과 관계가 깊긴 하지만 모든 행복을 설명해줄 수는 없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행복을 인스타그램에 의존해서 표현하려다 보면 알게 모르게 매우 물질주의적인 사람이 된다. 그러니 SNS를 사용하는 사람은 그것이 자신을 어떤 식으로 변화시키는 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과 SNS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데는 익숙하면서도, 정작 자기만의 특별함을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다.

'표현이 중요하다'는 면만 부각되는 것이 문제다. 많은 이들이 어떻게 화장을 할지, 어떻게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지에 대해서만 골몰한다.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속을 돌볼 생각을 하지 않고 표현을 하기 위한 방법에만 골몰해 있는 이들이 많다. 학생들은 취업을 위한 면접을 앞두고 면접 코칭을 받는다. 그러나 평소 내실을 다져왔다면, 이를 밖으로 잘 드러냈다면 그것이 좋은 표현이다. 가장 좋은 표현법은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남들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다. 나만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 나만의 개성이 저절로 표현된다. 글쓰기를 잘하고 싶다면 '글쓰기 테크닉'에 관한 책을 읽는 사람들도 있다. 글은 생각을 담는 도구다. '속'이 있는 사람이 쓴 글은 문장이 아름답거나 화려하지 않아도 좋은 글이다. 우리가 글쓰기 기술을 따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글을 못 쓰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사람들이 글을 못 쓰는 이유는, 평소 생각이 없고 책을 읽지 않았기 때문이다. 표현의 문제와 글쓰기의 문제는 같은 맥락이다.

나만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속'을 다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절대적인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도, '속전속결'도 없다.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속'이 깊어질 수 있다.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속이 깊어지길 원한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타인에게 배운다고 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다. 스스로 자기 시간을 할애해 배워야 하는 문제인데, 요즘은 워낙 사교육을 통한 주입식 교육이 발달하다 보니 학생들은 원가를 배우려면 인터넷 강의라도 들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원가를 배우려면 배우는 사람이 생각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배우는 사람이 생각하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다. 안타까운 건, 학생들이 점점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신이 원하는 것, 잘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다'며 방황하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다.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 20대 초반이라는 시간은 변덕스러운 때다. 어떻게 20대 초반에 자기가 뭘 잘하는지, 어디에 재미를 느끼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겠나. 20대 초반은 생물학적으로도 자기의 능력과 적성을 정확히 알 수 있는 나이가 아니다. 그때 진로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이 안타깝다. 만약 지금 자기의 적성을 못 찾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절망적이고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있다면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다. 나도 그런 과정을 겪었고, 모든 사람이 그렇다.

많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사이에서 고민한다.

'가슴이 뛰는 일을 하라'며 이른바 '멘토'라는 사람들이 거대한 사기를 치고 있다. 평생 가슴 뛰는 직업이 세상 어디에 있나? 물론 요즘 젊은이들이 꿈처럼 여기는 '덕업일치'가 가능하다면 이상적이긴 하겠다. '좋아하는 일'과 '먹고 사는 일'이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고작 1% 정도밖에 없다. 나머지 99%의 우리는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 철저하게 직업을 수단화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본다. 직업에서 보람을 찾지 말라는 의미다. 직업을 통해 적성을 찾을 필요는 없다. '멘토'들은 젊은이들에게 '가슴이 뛰는 일을 직업으로 삼으라'며 불가능한 메시지를 던져줬다. 젊은이들이 직업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니 직장에서 더 힘들고, 퇴사율도 높다. 직장에서는 내가 해야 하는 일을 해내고, 가슴 뛰는 일은 퇴근한 뒤에 찾으면 된다. '덕업일치'는 파랑새다. 파랑새만 쫓다 보면 인생 망한다.

그렇다면 직업 선택의 가장 좋은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고용조건이 직업 선택의 가장 좋은 기준이다. 얼마만큼 '칼퇴'가 보장되나. 얼마만큼 잔업이 없나. 얼마만큼 직장 내 괴롭힘이나 기타 불공정한 관행들이 없나. 얼마나 고용된 사람이 제대로 보호받고 있나 등 여부다. 고용조건을 제일 먼저 따져야 하는데, 많은 친구들이 취업할 때 연봉을 우선순위로 둔다. 연봉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해당 조직이 한 개인에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고용상 안전장치들을 제공하는 나이다.

취업 이전에 '대학' 자체에 의문을 느끼는 학생들도 있다.

요즘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이 70%에 달한다.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떠밀리듯 오다 보니 자신이 왜 대학에 와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 한국은 굉장히 급변했다. 특히 대학과 관련해서는 세대 간 격차가 크다. 내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대부분이 무학자였다. '소학교(초등학교)'만 졸업하신



분들이 20% 정도다. 내 세대가 대학 진학률 20%였고, 지금은 대학 진학률이 70%니 대학만 놓고 보더라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급변했는지 알 수 있다. 요즘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고등학생 때만 해도 '대학에 가면 모든 것들이 다 잘 되겠다' 라고 막연히 생각하다가 실망한다. 오히려 대학에서 친구를 사귀는 것부터, 경험하지 못 했던 여러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힘들어하게 된다. 내가 왜 대학에 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채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대학을 둘러싼 3대의 풍경이 한국 사회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

그렇다면 대학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나.

대학이 더 열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독일에 유학 갔을 때 인상적이었던 것은 대학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았다는 점이다. 노인들이 우리나라처럼 '노인대학'을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대학'을 다니는 것이다. '평생학습관'하고도 다르다. 독일에서는 노인들이 젊은 학생들과 똑같이 대학에 다닌다. 학문적 성격에 따라 젊은이들이 잘할 수 있는 학문이 있고, 삶의 경험과 연륜이

중요한 학문이 있다. 인문 사회 과학이 특히 그렇다. 여러 세대들이 어울려서 수업을 듣다 보면 각 세대가 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다. 한국에는 대학 언저리에도 가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아직 굉장히 많다. 대학을 젊은 시절에 다니는 곳이라고 한정하지 않았으면 한다. 삶의 어느 단계에서든 올 수 있는 곳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대학이 좀 더 사회와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

노명우 교수는
1966년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에서 태어났다.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다. 지은 책으로 <세상물정의 사회학>, <호모 루덴스, 놀이하는 인간을 꿈꾸다>,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노동의 이유를 묻다>, <혼자 산다는 것에 대하여>, <계몽의 변증법, 아만으로 후퇴하는 현대>, <계몽의 변증법을 넘어서>, <텔레비전, 또 하나의 가족>, <아방가르드>, <인생극장> 등이 있다.

“
 자신이 한길을 가기로 결정했으면
 갈등의 에너지를 일하는 데 쓰면 됩니다.
 자신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기로
 마음먹었다면, 최대한 달성하도록
 노력하면 됩니다.
 ”



하연태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부사장(산업공학과 80학번)은 25년간 우직하게 생산 분야의 길을 걸어온 '생산 전문가'로 통한다. 현대차 노사관계를 담당하며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을 이끌고 있으며, 지난 2013년에는 울산공장에 주간연속 2교대제를 도입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맡기도 했다. 현대차라는 한 직장에 30년이 넘도록 몸 담아온 하연태 부사장, 그가 후배인 아주대 학생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글 박예슬 사진 박시홍

“기회 붙잡는 인재? 따로 있죠!”

하연태

산업공학과 80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부사장

대학 시절엔 어떤 학생이었으며, 어떻게 현대자동차에 입사하게 되셨나요?

고등학생 때, 대학에 입학할 형편이 안 돼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아주대학교 산업공학과 80학번으로 입학했는데 학교에서 여러 지원과 혜택을 주었지요. 학비를 벌면서 공부하느라 동아리 활동은 할 여유가 없어 학업에 충실하고자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취업할 때인 1986년에는 한국 경제가 고속 성장기였습니다. 경기가 좋았어요. 여러 기업에 원서를 냈지만 최종적으로는 현대자동차에 입사하게 됐습니다. 현대자동차의 '묵묵하게 자기 갈 길을 가는 우직함'을 강조하는 인재상이 저와 잘 맞았습니다. 2008년까지 본사에 있다가 울산으로 왔고, 생산 분야에서만 25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현대차 노사관계를 담당하는 울산공장장으로서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을 이끌고 계십니다. 이도 '소통의 하나인데, 소통을 잘하기 위해 중요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회사는 입체적인 방식으로 직원들과 소통하려 노력합니다. 방송이나 유인물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지요. 외부 언론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인 의사소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 최저임금, 노동시간 등 관련법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것보다 한발 앞서가고 있지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 직원 교육도 빠짐없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통에서 중요한

부분은 상대방의 관심사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상대의 이해관계나 목적 등을 잘 알고 자신이 무엇을 취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 회사 내부에서는 직원들의 입장이나 관심사를 다 알고 이야기를 나누지요. 가족이나 마찬가지로입니다. 하다못해 휴가철에 가족끼리 어디로 휴가 갈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협상해봐야 하지 않나요. 저는 가족한테도 제 의견을 강요하겠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다양성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를 인정해주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지난 2013년 생산현장에 주간연속 2교대제를 정착시키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계신데...

제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장 잘 한 일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주간연속 2교대제는 오전 근무조가 아침 7시부터 오후 3~4시경 일을 끝내면 오후조가 다음날 오전 1시경까지 일하는 시스템입니다. 지금의 제도가 정착하기 전에, 기존 3교대 때 운영됐던 밤샘 근무가 있을 당시에는 근로자들이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밤샘 근무를 하다 보니 생체리듬에 문제가 생기고 수명 단축에도 영향이 있다는 보고서도 있었지요. 그러나 우리 회사는 한참 성장기에 있어 우려의 시선도 있었습니다. 기존 생산량을 맞추지 못할 가능성도 있었으니까요. 생산량이나 임금을 줄여서는 안됐습니다. 생산성을 높여야 했죠. 결과적으로 직원 수나 임금은 유지하고 생산량은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회사 차원에서 투자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몸 담았던 본사의 생산기술본부의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대학생을 비롯한 요즈음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많은 지식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른이 되면 돈을 잘 벌어야 하고, 운동 선수는 운동을 잘해야 합니다. 학생은 공부를 잘해야 되겠죠. 특히 독서, 전공과 관련된 책을 많이 읽어 지식을 쌓아두는 것은 개인에게 큰 자산이 됩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오지만, 기초가 단단해야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실력이 준비돼 있지 않으면 실력 발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대학 4년 간 배워서 40년을 업계에서 일해야 하잖아요. 20대 초반에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 보는 관점이 거의 굳어진다고 봅니다. 책을 많이 읽어두면 업계에서 일할 때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큰 도움이 되죠. 순발력도 중요하고 지식 축적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독서량이 많아야 내놓을 것도 있다고 봅니다.

'핵심 역량'과 관련해 아주대 학생들에게 좀 더 자세히 조언을 주신다면.

자기 전공에 대한 지식이 참 중요합니다. '일확천금'은 거의 이루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결국 자기 분야에서 성공해야 합니다. 사업이든 직장이든 말이지요. 한 우물을 20~30년간 판 사람이 부자가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세요. 자기가 처음 가진 직장에서 오랫동안 참고 버티면 성공할 확률도 높아집니다. 전문가가 되려면 한길을 파야 합니다. 또, 어떤 분야를 전공했다고 당당히 말하려면 자기 전공에 대해 책임질만한 전문 지식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야 회사가 그 사람을 믿고 채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생산 분야에 대한 책을 졸업 후에도 많이 읽었고,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채용시장 불황 때문에 학생들의 고민이 큼니다.

우리나라 고속 성장기에는 노동시장에 수요가 더 많았습니다. 지금은 공급 과잉이니까 무엇보다 실력을 갖춘 인재가 돼야 합니다. 하나 더 조언하자면 기업에는 적극적인 사람이 필요합니다. 개인이 갖춘 잠재능력도 중요하지만, 사실 얼마만큼의 성과를 내놓느냐가 기업에게 중요하거든요.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그 능력을 다 회사를 위해 쓴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사람은 회사에서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일할 것이라고 보는 거지요. 예를 들어 면접 자리에서 면접을 잘 못본 것 같아도 포기하지 않고 먼저 나서서 "아까 부족하게 답변한 것 같은데 다시 말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라고 말하는 사람이 눈에 띄어요. 그런 친구는 다시 보게 됩니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회사 입장에서 적극적인 사람은 회사에서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일할 것이라고 보는 거지요. ”

현대자동차에서 생산 분야라는 한길을 오랫동안 걸어오셨습니다. 중간에 흔들린 적은 없으셨나요?

저도 중간에 흔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사원 때 제일 갈등이 많습니다. 과장 직급으로 승진할 즈음 되면 또 고민이 생기지요. 일정 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원 때는 '내가 고작 이런 일이나 하려고 입사했나'하면서 방향하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그래서 1~2년차 때 많이 그 만듭니다. 과장이 돼서는 창업의 꿈을 안고 회사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고요. 갈등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저도 안 가본 길에 대해 후회가 있습니다. 뭘 해도 자신이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는 후회하게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지, 인생은 한 번 사는 겁니다. 뭐든 열심히 해야 합니다. 자신이 한길을 가기로 결정했으면 갈등의 에너지를 일하는 데 쓰면 됩니다. 자신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기로 마음먹었다면, 최대한 달성하도록 노력하면 됩니다. 'Do your best!' 지난 일은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한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과 능력은 한정돼 있으니까요. 목표를 세우면 앞을 향해 밀고 나가세요. **A**

하언태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부사장은
1962년 경북 경주에서 태어났다. 경주고등학교와 아주대학교 산업공학과(80학번)를 졸업했다. 현대자동차에 입사한 이후 쪽 생산 분야에서 일해 왔다. 생기획지원실 실장, 생산운영실 실장, 종합생산관리사업부장, 울산공장 부공장장을 지냈다. 현대차 울산공장에 주간연속 2교대제를 도입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맡았다.



“
 쉽고 편한 일만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힘들면 포기하고 싶겠지만, 자신이 하고 싶은
 일만 골라서 한다면 진정한 목표를 이룰
 수 없습니다. 도전해서 끝까지 몇 년이고
 해 보세요. 그러면 갈 수 있는 길은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



이삭애견훈련소의 대표인 이용중 소장은 그야말로 ‘덕업일치’를 이뤄냈다고 말할 수 있는 인물이다. 어렸을 때부터 개를 비롯한 동물을 워낙 좋아했다는 이용중 소장.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삼는다’는 말은 달콤하게 들리지만, 목적지까지 가는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고 한다. 대한민국 1호 반려견 심리전문가 이용중 소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글 박예슬 사진 김성재

‘강아지 대통령’의 치열한 인생 기록

이용중

아주대 의과대학원 정신의학과 수료
 이삭애견훈련소 대표

이용중 소장은 어린 시절을 충청남도 연기군의 자연 속에서 보냈다. 마을의 ‘검둥이’, ‘누렁이’와 놀면서 컸다. 동물을 좋아했던 그는 고등학교 축산과에 진학해 목장을 경영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꿈은 금방 좌절됐다. “집안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학비를 직접 벌었습니다. 형편이 이렇다보니 목장 경영은 말 그대로 꿈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강아지와 관련 있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때는 개 훈련사라는 직업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지요.” 목장에서 개 증견장으로 눈을 돌린 이 소장은 고모부 댁에 있던 일본의 아키타(秋田)견에 반한다. 그리고 아키타견 입양을 위해 50만 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한다. 이 소장이 고등학생이던 1987년, 당시 3,000~5,000원이면 강아지 한 마리를 살 수 있을 때였다. 이 소장은 입양한 강아지 새끼를 분양할 셈이었다. 이 소장이 입양한 아키타견은 새끼를 다섯 마리 낳았지만, 제값을 받을 수는 없었다. “그 촌구석에서 아키타견을 비싸게 주고 사겠다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마리당 10만 원을 받고 팔았죠. 알고 보니 강아지 값을 잘 받으려면 제가 키우는 개가 각종 대회에서 챔피언도 돼야 하고, 견주가 유명해져야 한다고 하더군요. ‘나도 나중에 유명해져야겠다고 생각했죠.’ 이 소장의 목표는 명확하고 단순했다. 유명해지는 것! 해병대에 자원입대한다. 이 소장은 부산 가덕도라는 섬으로 발령을 받고, 그곳에서 군견을 만나게 된다. 사람의 말에 따라 앉거나 엎드리거나 짓기도 하는 군견의 모습이 이 소장의 눈에 들어왔다. ‘이거다!’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다. 이때부터 이 소장은 본격적으로 개 훈련사의 꿈을 키운다. “저는 훈련사 생활을 하면서 목적이 명확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유명해지는 거였죠. 그래서 전략을 세웠어요. 우선 ‘도그쇼’ 등 대회를 씩씩이하고, 그 다음에는 각종 대회의 심사위원들을 찾아가 개에 대해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해병대에 복무하던 이 소장은 한 달에 단 하루인 휴일, ‘도그쇼’ 심사위원들을 찾아나선다. 밤 열차에 몸을 싣고 전국 방방곡곡의 심사위원들을 찾아 “나, 이용중이라는 사람을 알리러 왔다. 개에 대해 알려 달라”고 말했다. 지금처럼 반려견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던 시절이었다. 컴퓨터나 인터넷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교재를 구하기도 어려웠다. 이 소장은 군견 교본을 보거나 미국, 일본 등에서 들여온 책을 복사해서 봤다. 외국어를 알 수가 없으니 책에 실린 그림만 보며 훈련 과정을 상상했다. 영어나 일본어를 아는 사람에게 번역을 부탁하기도 했다. 거의 발품을 팔고 몸으로 때워가며 정보를 얻었다. “교재 찾기가 어려웠고 개를 훈련시키는 훈련소 환경도 굉장히 열악했어요. 또 예전에는 훈련사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훈련 기술들을 공개하지 않아서 더 힘들었어요. 예방접종 관리가 안 되다 보니 심장사상충 감염 등 병으로 갑자기 죽는 개들도 많았습니다.” 사회에 나와 훈련소를 인수한 이 소장은 이미 개를 키우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유명인이었다. 그런 이 소장에게 IMF가 터진 1997년은 특별한 인연을 만난 해다. 대입 수험생의 스테디셀러 <수학의 정석>을 집필한 홍성대 씨가 그를 찾은 것이다. 홍성대 씨는 이 소장에게 자신의 개 ‘대철이’를 훈련시켜 달라고 부탁했다. 훈련은 성공적이었다. 대철이는 각종 훈련 대회를 거의 ‘씩쓸이’ 하다시피 했다. 각종 영화나 드라마, CF에까지 출연했다. 이 소장은 대철이를 훈련소에서 퇴소시켜 홍성대 씨의 집으로 보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대철이가 홍성대 회장님의 말을 전혀 듣지 않더군요. 저는 억울했어요. 홍 회장님 눈앞에서 바로 훈련 시범을 보여줬죠. 대철이는 제 말을 잘 들었어요. 제가 홍 회장님에게 말했죠. ‘이런 개를 놓고 훈련을 못 시켰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자 홍 회장님이 막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더군요. ‘이 개 주인은 나인데, 내 말을 안 듣잖아. 그게 훈련이 잘 된 거냐고.’”

홍성대 씨는 이 소장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훈련 노하우를 다 공개하라고 조언했다. 당시는 훈련사들이 자신의 훈련법을 공개하지 않은 시절이다. 하지만 홍성대 씨는 이 소장에게 기술을 공개해야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힘들수록 자신에게 투자해야 한다'며 '외국으로 떠나 공부하라'고 말했다. 이 말이 계기가 돼 이 소장은 미국행을 결심한다. 당시 미국은 이론 교육을 밑바탕으로 한 절도 있는 기계식 훈련법이 유행이었다.

"IMF 시절, 한국인 10명이 미국 비자를 신청하면 1명이 받을까 말까 하던 때였어요. 하지만 미국행을 포기하지 않았죠. 그러던 차에 기회가 왔어요. 면접관이 '개 훈련사(Dog Trainer)라는 직업이 한국에도 있느냐, 왜 미국에 오려고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개 훈련을 잘 시키는 나라'라고 답했어요. 그랬더니 '오케이'가 떨어졌죠. 미국에 가셔도 저는 '월드 챔피언' 개를 배출한 훈련사를 찾아갔어요. 어떤 일을 시작하든 그 업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을 먼저 찾는 것이 제 비즈니스 방법이었던 거예요." 이 소장은 미국에서 3개월간의 공부를 마치고도 만족하지 못해 다시 일본으로 향했다. 그는 일본에서 6개월간 크고 작은 세미나에 참석하며 유명 훈련소를 방문했다. 한국으로 돌아온 이 소장은 미국과 일본에서 습득한 훈련법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한국식 훈련법'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훈련법을 SBS <동물농장>의 <개과천선> 코너를 통해 대대적으로 공개했다. KBS2 <1박2일>에 출연하며 큰 인기를 얻은 국민견 '상근이'도 탄생했다.

"기술을 다 공개하면 일이 안 들어올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더군요. 저는 한국에 오자마자 전국을 돌며 훈련 시범을 보이고, 저만의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반려견 문화가 점차 자리를 잡기 시작한 시점과 맞물리며 저희 훈련소는 큰 이슈로 떠올랐죠. 기존에는 견주를 교육시키다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면 개들이 훈련소에서는 말을 잘 듣지만 견주 말은 안 듣게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기술을 공개하고 견주님을 교육하니 오히려 일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 소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보육원과 양로원을 순회하며 훈련 시범 공연을 선보였다. 그러던 과정에서 수원시 장애인 부모회라는 단체를 알게 된다.

"지체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마땅히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장애를 가진 분들이 바깥을 돌아다니기도 힘들었어요. 지체장애를 가진 아이들과 그 부모님들을 위해 '백구와 친구하기'라는 동물 매개 치료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무척 반응이 좋아서 10년 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주대학교 병원의 배기수 박사를 만나게 된 것도 그때다. 당시 배 박사는 독일에서 동물 매개 치료 프로그램을 알게 된 뒤 해당 프로그램이 국내에도 정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때 수원시 장애인 부모회에서 이 소장을 배 박사에게 추천했고, 배 박사는 이 소장을 찾는다. 그리고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원 정신의학과 진학을 권한다. 이 소장은 동물 매개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심리상담사 1급 자격증을 이미 따 놓은 상태였다. 보육원과 양로원을 순회하는 과정에서 요양복지사 자격증도 취득했다.



"저는 애초에 수의학과 대학원에 진학할 생각이었습니다. 정신의학과 진학을 추천받았을 때는 자신이 없었어요. 저는 개 전문가이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요. 그런데 배기수 박사님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동물 매개치료 프로그램이 국내에 정착하려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거였죠. 배 박사님은 제가 정신의학을 전공해 동물 매개치료 프로그램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길 바라셨습니다."

이제 이용중 소장은 국내에서 원조 '개통령'으로 통한다. 단순히 보이지만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뤄온 그가 아주인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쉽고 편한 일만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힘들면 포기하고 싶겠지만, 자신이 하고 싶은 일만 골라서 한다면 진정한 목표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세상에 힘들지 않은 일은 없습니다. 도전해서 끝까지 몇 년이고 해 보세요. 3~5년은 고생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갈 수 있는 길은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

이용중 소장은
이삭애견훈련소 대표다. '대한민국 1호 반려견 심리전문가'로 알려졌다. SBS <TV 동물농장>, KBS <1박2일> MBC <아이러브펫>, 이데일리TV <국민 토크쇼 왓왓> 등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다.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원 정신의학과 석사과정, 일본 이다치 경찰견훈련소 IPO 심사위원 과정, 미국 니카매슈 슈츠훈트클럽 훈련 과정, 일본 센터이 경찰견 훈련소 가정견 어질리티 교육 과정을 수료했다.





“
 후배들에게 해주고픈 이야기는 본인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너무 뻘한 이야기라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은 바를 제대로 하지도 않으며 나를 알아달라고 해선 안됩니다. 한국 혹은 세계 어느 자리에 있든, 그 말을 명심해 주기를 바랍니다.
 ”

아주대를 졸업한 양의혁 동문(제어공학과 86)은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NASA, National Aeronautics & Space Administration)를 거쳐 미국 스티븐스 공대 교수를 맡고 있다. 아주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딴 뒤 국내 '토종' 학위만으로 세계를 향해 날갯짓한 그. 뭔가 특별한 비법이라도 있었던 것일까? 양의혁 동문의 답은 간단했다. 세계 어느 자리에 있든, 말은 바 최선을 다할 것!

글 박예슬 사진 김성재

오직 자신의 능력으로 평가받을 것

양의혁
 제어공학과 86
 미국 스티븐스 공대 교수

요즘은 한국에서도 많이 알려진 나노테크놀로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이 분야를 연구했으니 10년 가까이 됩니다. 이전에는 멤스(Micronic Electronic Mechanical System)를 연구했지요. 제 지도교수님은 양상식 교수님이셨어요. 아주대 부임하셨을 때 제가 첫 학생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 분야가 불모지였기에, 고생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아무도 도전하지 않는 분야를 개척했다고 할 수 있지요. 학부도 1회, 박사도 1회였습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대학교에서 멤스를 연구하고 1996년 일본에 갔습니다. 후지타 랩에서 한국에서처럼 멤스 연구를 했습니다. 일본에 그 분야의 대가가 두 분 있었는데 그 중 한 분이 예사시 교수, 한 분은 후지타 교수님이셨습니다. 동경대에서 2년 반 연구하고 미국 나사에 가서 일을 하게 됐죠.

사실 외국에 꼭 가야겠다는 목표를 가진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한다던가 박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해보는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한계를 정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다 보니 현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고 MIT교수가 되지 못하란 법이 있나?' 하는 생각은 했습니다. 열심히 하지 않으며 그런 생각을 하면 문제겠지요. 저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석사과정 때부터, 한두 달 동안 연구가 너무 바빠 랩에만 머물며 가족사에 가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실험실이 있던 원천관에 불이 자주 나가 촛불을 켜놓고 공부한 기억이 납니다. 자다가 꿈에서 연구 내용이 생각나서 새벽 3시에 일어나 메모하기도 했지요.

영어 공부도 매우 열심히 했습니다. 10년 동안 영어를 들으면서 잤어요. 그래서 지금도 귀 한쪽이 잘 안 들립니다. 지금은 미국에 오래 살아 영어가 한국어보다 편한데, 처음 미국에 갈 때는 제가 영어 공부를 많이 해 할하는 편이었는데도 힘들었죠. 아무래도 학교에 간 것이 아니라 나사에 처음 가서 더 힘들었습니다. 학교라면 유학생이니 이해해줄 수 있겠지만 전 그렇지 않았으니까요. 처음에는 중요한 부분을 잘못 알아듣고 제한구역에 가는 바람에 첫날부터 총에 맞을 뻔 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기억이 생생하면 그날이 언

제인지 아직도 정확히 기억합니다. 1999년 1월8일 11시 30분이었어요. 한국은 선배가 후배를 끌어주는 문화가 있지만 미국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동양 문화는 고생시킨 후 사다리를 놔주고 올라오라고 하지만, 미국은 바닥에 떨어트려놓고 알아서 나오라고 한달까요. 자기보다 10년 후배도 잘 하면 보스가 됩니다. 그런 것이 정서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사회입니다. 살아남지 못하면 끝입니다. 처음엔 밥도 혼자 먹고 아무도 말도 시켜주지 않습니다. 후에 보니 내가 먼저 말을 시켜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공대의 경우 1명을 모집할 때 300개의 지원서가 옵니다. 70%는 미국대학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은 사람들이지요. 그 300명 중에 한 명을 뽑기 위해 어느 대학 출신인지를 봅니다. 그렇다면 미국 출신을 뽑지 한국에서 온 사람을 뽑을까요? 그렇게 처음에 들어갈 때는 불리한 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도 '간판'을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좋은 점은 일단 들어가면 능력으로 평가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학위, 출신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연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나사에서도 아주대 나온 것에 대해서 아무도 신경쓰지 않았습니니다.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는 나가 중요할 뿐이었습니다.

제가 후배들에게 해주고픈 이야기는 본인이 하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너무 뻘한 이야기라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은 바를 제대로 하지도 않으며 나를 알아달라고 해선 안됩니다. 한국 혹은 세계 어느 자리에 있든, 그 말을 명심해 주기를 바랍니다. 

양의혁 동문은
 미국 뉴저지 주의 스티븐스 공대(Stevens Institute of Technology) 교수로 재직 중이다. 아주대에서 MEMS 분야를 연구해 이 분야 국내 1호 '토종 박사'로 이름을 알린 바 있다. 1996년 일본 도쿄대 산업기술연구소를 거쳐 1999년 미국 항공우주국 제트추진 실험실(NASA Jet Propulsion Laboratory)에 입성, 사니어 연구원 및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했다.

전 세계 아주대 동문 네트워크를 활용하세요!

아주대 출신들의 해외 진출이 그리 활성화되지 않았던 1994년 미국에 왔습니다. 그런 만큼 그간 내가 바로 아주대 대표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생활해 왔습니다.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스스로가 아주대의 대표라는 목표의식을 갖고 과감히 도전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과 달리 이제 세계 어디에나 아주대 동문들이 진출해 있습니다. 그만큼 넓은 네트워크를 통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충분히 활용해 세계를 무대로 큰 목표를 세우기를 바랍니다.



이남수
공업경영학과 79
Unisource America 사장
시카고 동문회장



두려움을 떨치고 도전하길

두려움이 제일 큰 적입니다. 특히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제일 클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일하는 엔지니어링 쪽은 한국 교육을 통해 경험한 수학, 과학 그리고 과업 이해 능력이 미국 현지에서 교육 받은 동료들을 압도하기 때문에, 일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이곳 한국인들의 업무 성과가 좋기 때문에 한국인을 선호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은 자원은 부족하지만, 높은 교육열의 성과(?)로 유능한 인적자원이 많습니다. 그렇게 뛰어난 인적자원들이 한국 내 같은 회사, 사무실에서 경쟁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 힘들뿐더러, 국가 차원에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차라리 해외에서 세계인들과 경쟁해, 한국의 브랜드를 높이고 달러를 버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애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계를 무대로 일하며, 가정의 행복을 중요한 가치로 인정하는 사회 분위기, '워라벨'을 꿈꾸는 후배라면 도전하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박정순
건설시스템공학과 98
Infrastructure Engineering Inc.
프로젝트매니저

시카고 동문회는

일리노이공과대학(IIT)에 아주대학생 20여 명이 파견돼 있음이 동문들 사이에 우연히 알려지게 되어 모임이 시작되었다. 78학년부터 15학번까지 주재원, 이민, IIT 졸업생 및 유학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8월 14일~17일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한미과학기술학술대회(UKC, US-Korea Conference on Science, Technology and Entrepreneurship)에 참가한 박형주 총장이 현지에서 이들을 만나 격려의 자리를 가졌다.



복수학위 파견을 결정했다면 빠르게 움직이세요

미국에 도착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입장에서 후배들에게 '도전해라, 할 수 있다'라는 조언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적응 중이니까요. 그러므로 복수학위 파견을 생각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파견을 결정했다면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상대교의 행정, 교무, 학사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상대교의 선생님, 교수님들에게 직접 메일을 보내 정보를 얻으십시오. 예를 들어, 아주대에서 대체 가능한 교양과목이 있다면 먼저 상대교에 그 과목에 대한 학점 인정 가능성 문의 후 수강신청을 하십시오. 또한 진로와 관련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미 파견 중이거나 파견됐던 선배에게 연락을 취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대 학생들은 잘 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김형준
기계공학과 15
IIT 복수학위 파견



젊음이 있으므로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15년 전의 저 역시 그랬듯 해외 진출을 고려하는 후배라면 누구나 언어장벽, 가정형편, 낯선 환경 등 다양한 이유로 걱정과 두려움이 앞설 것입니다. 그리고 막상 해외에 진출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냈을 때마다 성취감과 자신감을 키워갈 수 있습니다. 제가 아주대에 입학했을 당시 '여러분은 젊음만 가지고 오십시오. 나머지는 저희들이 책임지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젊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도전하고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도전을 포기한다면 절대 얻을 수 없는 값진 경험과 뿌듯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아주대는 교환학생이나 복수학위 프로그램 등 다양한 기회를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외 진출에 도전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지환
산업공학과 99
인디애나 퍼듀 대학교 재직



왼쪽부터 김형준(기계공학과 15), 이남수(공업경영학과 79), 박형주 총장, 박정순(건설시스템공학과 98), 박지혜(건축학과 97), 이지환(산업공학과 99)



필터시장 기술독립 이끈 이노필텍

국내 제조업체들이 일본의 경제보복이 시작된 이후에 일본 의존도가 높았던 부품을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화학공학과 85학번 김정우 대표는 이미 수년 전에 반도체공장의 클린룸(Cleanroom)에서 사용하는 일본산 케미컬필터(CHEMICAL AIR FILTER)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해 삼성전자 및 하이닉스에 납품한 이력이 있다. 국내 필터 분야에서 일찍이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셈이다.

글 정우준 대학발전팀

김정우

화학공학과 85 이노필텍 대표



많은 필터업체들 중에 유독 눈에 띈다.

선점했기 때문에 앞설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비교적 일찍 필터 분야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그간 차근차근 쌓아온 기술력도 한몫 했다. 엔지니어 출신이어서 연구의 중요성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동안 연구비로 매출의 10%를 꾸준히 투자해 왔다. 현재 김포 본사 1층 전체를 연구소로 사용할 만큼 연구에 대한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다. 최근 성과는 그 결실이 아닐까 생각한다.

필터, 일반인에게 용어는 익숙하지만 제한된 쓰임새만 알려져 있는 것 같다.

필터는 원하는 물질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조직을 만들어 낸 것이다. 기름, 물, 먼지 그리고 냄새까지 목표하는 물질을 걸러낼 수 있다. 일반인에게 익숙한 것은 공기청정기, 정수기 정도지만 이미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고 확장성도 무궁무진하다. 마스크도 필터의 한 종류이고, 자동차 실내에 들어오는 공기도, 심지어 진공청소기에도 필터가 쓰인다. 반도체, 화학 등 먼지와 가스 유입을 차단해야 하는 공장에서도 그리고 지하철이나 큰 건물 내 공기의 관리를 위해서도 필터는 필수가 됐다. 최근 대기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국내 기준도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는 추세여서 필터에 대한 수요는 커질 것 같다. 필터는 점점 더 우리 생활과 밀접해지고 있고 앞으로 더욱 그럴 것이다.

“비교적 일찍 필터 분야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그간 차근차근 쌓아온 기술력도 한몫 했다. 엔지니어 출신이어서 연구의 중요성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동안 연구비로 매출의 10%를 꾸준히 투자해 왔다. 최근 성과는 그 결실이 아닐까 생각한다.”



현재 사업의 성장 상황은 어떤가?

일반적으로 필터는 탈취와 집진 기능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이노필텍은 탈취 분야에서는 국내 1위다. 집진 기능은 기술력이 덜 요구되는 분야이고 진입장벽이 낮아서 그동안 집중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 탈취와 집진 기능을 서로 융합한 제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집진 필터 분야에도 공격적으로 진출하기로 했다. 현재 공장에 생산라인을 구축 중이고 하반기부터 생산에 돌입한다. 부산 공장에서도 비록 자체 브랜드는 아니지만 기능성 마스크 생산을 준비 중이다. 탈취 분야의 강점을 살려 돈(豚)사, 우(牛)사에서 나는 악취를 처리하는 분야로도 진출을 염두하고 있다.

국내시장이 점점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공기청정기 생산단가에서 우리 회사의 필터는 약 20% 정도를 차지한다. 우리는 나름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어서 단가에 대한 대우가 좋은 편이다. 그렇다고 대기업이 당장 필터 시장에 진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필터는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등 5대 가스로 반드시 테스트를 거쳐야 하는데 대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가스를 관리하면서 테스트를 진행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당분간 필터 시장에서의 우위는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해외시장의 전망은 어떤가?

과거 일본 공기청정기 산업이 우리보다 10배 이상 컸다면 지금은 역전된 상황이다. 일본 정부가 공기 오염을 꾸준히 관리한 성과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성장한 이유도 있다. 중국도 수년 전부터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시장 규모가 급성장했다. 이처럼 굴목산업이 성장한 곳에는 필연적으로 기회가 생기더라. 해외 진출을 노리는 곳은 인도와 동남아 쪽이다. 두 곳 모두 최근에 공장이 많이 지어지고 있고 대기 질이 나빠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공기청정기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다. 점차 우리에게 큰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차근차근 준비 중이다.

이노필텍에 입사하고 싶은 이들에게 조언한다면?

화학공학 전공자들이 유리하고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특히 연구소는 전원 화학공학 전공자들이긴 하다. 전공자들이 업무 습득도 빠르고 이해도도 높겠지만 화학공학 전공이 필수는 아니다. 세상 모든 일들이 그렇지만 자기 스스로 자신을 아끼면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어느 분야에서 활약하든 필요한 덕목일 것이다. 중소기업은 인재를 뽑기가 어렵다. 사회 전체로는 취업난이라고 하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구인난이다. 미스매칭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임금을 대기업 수준에 맞추기는 어렵다. 대신 직원들 간의 화목과 융합을 강조하면서 더불어 복지에도 집중하려 한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려 한다.

CONNECTING MINDS

회사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노필텍은 혁신적인(innovative)와 필터(filter),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이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필터 제조 회사다. 국내 탈취용 공기필터 납품시장에서는 약 6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LG전자, 웅진코웨이, 위닉스, 오텍캐리어 등 가전분야 대기업들이 주요 고객이다. 최근 본사를 김포로 확장 이전 했고, 인천, 창원, 부산에 각각 다른 제품 생산라인을 갖춘 공장을 운영 중이다.

20여년 전 설립해 줄곧 한 분야만 폼다. 필터가 낯선 사람들은 흔히 볼 수 있는 부직포를 떠올리면 된다.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입사한 회사가 부직포를 만드는 회사였다. 필터가 결국 부직포를 만드는 원리를 응용한 분야다. 그 인연으로 지금까지 이 분야에 발을 담고 있다. 필터는 공기청정기 외에도 산업과 우리 생활 속 곳곳에 쓰임새가 많은 제품군이다. 그만큼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크다.

최근 나빠진 대기질 때문에 공기청정기 등 필터가 핵심인 제품 수요가 크게 늘었다. 2015년 약 50억이던 매출이 87억, 160억 그리고 지난해 290억 원으로 수직상승했다. 올해 400억 원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한다.



4차 산업혁명의 선두를 이끌어갑니다

4IR,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자동차는 이제 기술린이 아니라 SW로 달린다”

다임러 AG의 전 회장인 디터 제체(Dieter Zetsche)의 말입니다. 그만큼 소프트웨어는 4차 산업혁명에서 핵심이 되는 기술융합의 핵심 도구로 떠올랐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로봇기술, 생명과학이 주도하는,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이뤄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합니다. 여기서 소프트웨어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다양한 서비스와 제품으로 발전시킵니다.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며 연구개발 단계에서 창업이 가능하다는 점도 돋보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주요 선진국은 SW를 미래 산업 발전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의 지렛대로 인식하고 있으며 각종 지원 정책과 교육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는 2015년 'SW중심대학지원사업' 선정을 계기로, SW중심사회를 선도하는 고급 SW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기존 정보컴퓨터공학과와 소프트웨어융합학과를 통합해 2016년 1월에 정원 104명으로 신설되었습니다. 'SW중심대학지원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주관하는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 육성사업입니다. 우리 학교는 첫 해인 2015년도부터 선정돼 4년간 1~2단계 사업을 진행했으며, 그동안 총 100억 5,000만 원 상당의 국고 지원을 받았습니다. 올해 재차 선정돼 2020년까지 3단계 사업을 이전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학과는 단순한 지식 전달보다는 실전적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엄격한 학사 관리와 졸업 요건 강화를 통해 수준 높은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교수진과 다양한 지원으로 양과 질 모두 수준 높은 취업률 역시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학과 재학생들은 장단기 인턴십을 통해 현장실무 능력을 배양하여 정보통신, S/W, 전자 등 IT 관련 기업은 물론 금융, 자동차, 공공기관 등 IT 관련 기술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응용 산업체에 프로그래머, 소프트웨어 디자이너, 소프트웨어 아키텍트, 시스템 엔지니어, 통신 전문가, 보안 전문가 등 다양한 직종으로 진출합니다. 앞으로도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는 지속적인 교육과정 혁신을 통해 명실상부한 SW 중심 사회를 선도하는 학과로 성장해갈 것입니다.

“ 소프트웨어학과는 단순한 지식 전달보다는 실전적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엄격한 학사 관리와 졸업 요건 강화를 통해 수준 높은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교수진과 다양한 지원으로 양과 질 모두 수준 높은 취업률 역시 나타내고 있습니다. ”



이석원

소프트웨어학과 학과장





Recommended boo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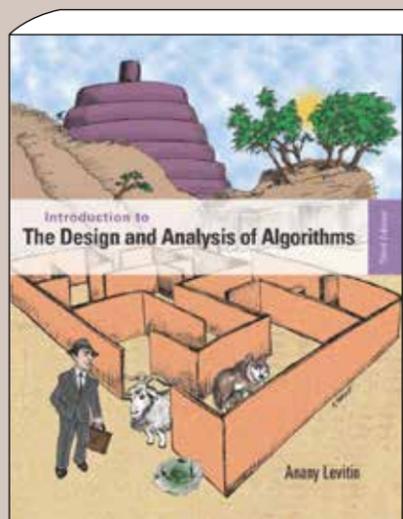
4차 산업혁명에 있어 소프트웨어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다양한 서비스와 제품으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공자는 물론 비전공자에게도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식을 다져줄 수 있는 책 두 권을 소개한다.



미래를 바꾼 아홉 가지 알고리즘: 컴퓨터 세상을 만든 기발한 아이디어들

존 맥코믹 지음/민병교 옮김/에이콘/2013년 출간

많지 않은 컴퓨터 관련 교양서적의 하나로 미국 구글의 페이지 랭크, 검색엔진, 오류 정정코드, 공개키 암호화, 디지털 서명, 데이터 압축, 패턴 인식, 데이터베이스, 계산 가능성과 결정 불가능성 등 현대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친 컴퓨터 기술의 이론적 아이디어들을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Introduction to the Design and Analysis of Algorithms

Anany Levitin 지음/Pearson/2012년 출간

이 책에서는 소프트웨어공학에서 다루는 기본적인 알고리즘 분야를 소개합니다. 주어진 알고리즘의 간단한 수학적 배경과 사례 접근 방법 및 의사코드도 주어져 있으며, 응용할 수 있는 사례를 예제와 연습문제로 구성합니다. 이와 같은 구성으로 다양한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와 적용 가능한 사례에 대한 숙지가 가능하며, 알고리즘의 의사코드를 보임으로써 여러 가지 언어로 표현하기에 유용합니다. 처음 알고리즘을 접하는 학생들에게 쉽고 다양한 내용을 전달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입생이 간다 코딩캠프에서 내일을 찾다

소프트웨어학과 1학년 최민석



대학에 오기까지 내가 걸어온 길

프로그램의 작동 원리가 궁금했던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코딩을 시작했습니다. 우연히 나가게 된 지역 코딩대회 입상을 계기로 코딩대회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풀이 사이트를 이용해 꾸준히 문제를 풀며 정보올림피아드와 각종 알고리즘 경진대회, 해커톤 대회 등의 입상을 준비했습니다. 슬럼프가 와서 힘들었던 적도 있었지만, 대회에 참가하며 실력을 키우니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아주대학교를 선택한 이유

제가 아주대학교를 처음 접하게 된 것은 중학생 때부터 참가했던 코딩캠프에서였습니다. 코딩캠프를 아주대 캠퍼스에서 진행했는데 캠프를 진행하면서 알고리즘을 향한 호기심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인 아주대학교에 정이 많이 생겼습니다. 또한 아주대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보고 학교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가장 먼저, 제가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기초 교양과목 공부를 충실히 해서 근본이 있는 학생이 되고 싶습니다. 또한, 대학에서도 꾸준히 실력을 키워 알고리즘 대회에 계속해서 참가하고 싶습니다. 고교 때까지 제 코딩 공부는 알고리즘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대학에서는 개발 분야도 깊이 공부해 해커톤과 같은 개발 대회에도 참가하여 제가 만들어 보고 싶었던 것들을 만들고 평가받을 기회를 계속해서 만들고 싶습니다.

졸업 후 진로는?

우선 입사, 대학원, 창업 등등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저는 아직 졸업 후를 계획해 두지는 않았습니다. 컴퓨터가 좋아서 시작한 코딩 공부였기 때문에 어떠한 진로를 정하고 공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이용한 여러 가지 상품들을 보면서 꼭 진행하고 싶은 프로젝트들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을 진행하면서 재미있고 의미있는 성과를 얻게 된다면 관련된 분야로 꼭 커리어를 이어나갈 수 있을것 같습니다.

내 나이 50, 어떤 모습의 나였으면

50이면 삶이 자리를 잡고 입사를 했다면 상황에 따라서 은퇴를 준비해야 할 수도 있는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50의 저는 원하는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늘 무엇을 만들어야 재밌을까 고민하는 저이기에, 투자 가치가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자아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돈도 많이 벌었으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대학교에 바란다!

입사에서 아주대학교에 붙고 정말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주대학교라면 제가 공부하고 싶었던 것들을 배우고 학교의 다양한 지원을 받으면서 하고 싶었던 활동들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대학교가 앞으로도 피란학기제 같은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고 시도하며 더 우수한 장학제도로 학생을 위해 투자하는 더욱 자랑스러운 대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



최민석 학생 수상경력

- 부산SW교육 학생 해커톤 대회 (대상)
- 제34회 한국정보올림피아드 부산대회 (동상)
- 제35회 한국정보올림피아드 부산대회 (장려)
- 제32회 한국정보올림피아드 전국 경시대회 (동상)
- 제32회 한국정보올림피아드 부산대회 (은상)
- 제28회 전국 ICT 창의성대회 프로그래밍전문가 부문 (은상)
- 제24회 서울특별시 IT 창의성대회 프로그래밍전문가 부문(동상)
- 2016 ICT 어워드코리아 이산수학 고등부 (동상)
- 2017 ICT 어워드코리아 이산수학 고등부 (장려상)
- 2016 ICT 어워드코리아 C언어알고리즘 프로그래밍 고등부 (장려상)

아주의 '기억'을 찾습니다

당신의 자료가 아주대학교의 역사가 됩니다. 우리대학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주세요!

2019
7.17
—
10.31

/공모내용

아주대학교의 풍경, 인물, 장소, 건물, 행사, 수업 및 학생활동 등 관련된 모든 자료

- 문서자료 : 졸업증서, 합격증, 성적표, 등록금영수증, 강의노트, 서적 등 각종 문서
 - 간행물 : 각종 간행물 및 포스터, 인쇄물 등
- 시청각 자료 : 학교 전경(주변) 사진 및 행사사진, 음반, CD, 비디오테이프 등
 - 박물류 : 학과 기(旗), 뱃지, 상패, 행사 기념품, 우승컵, 학생증, 의류 등
 - 학생 활동 자료 : 팸플릿, 포스터 학생활동 관련 유인물 등

/참가대상

제한 없음
(재학생, 졸업생, 퇴·재직 교직원, 기타 본 대학 관련 자료를 보유한 일반인 및 단체 등)

/상품

최우수상(1점) : 감사패 및 상품(50만원 상당)
우수상(3점) : 감사패 및 상품(30만원 상당)
참가상 :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트콘

*선정기준은 홈페이지 유의사항 참조

/참가방법

참가 신청서와 함께 소장 자료 접수

- 우편접수 및 방문 접수(중앙도서관 1층)
- 대학사료실 홈페이지 접수

/주최 및 문의

아주대학교 대학사료실(<http://archives.ajou.ac.kr>)

담당자 : 안다영 Tel. 031-219-2136

“감사합니다!” 정년퇴임 교원에 감사패 전달

2019학년도 1학기를 끝으로 정년퇴임하는 아주대 교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뜻깊은 행사가 마련됐다. 지난 8월26일 마련된 정년 기념 오찬에는 박형주 총장과 김혜선 대학원장 등 소속 대학 학장(원장)이 자리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올 1학기를 마지막으로 강단을 떠나는 교수는 11명으로 ▲이상덕 교수(건설시스템공학과) ▲김상열 교수(물리학과) ▲송현호 교수(국어국문학과) ▲김준한 교수(행정학과) ▲김형택 교수(대학원 에너지시스템학과) ▲김의환 교수(대학원 시스템공학과) ▲이재천 교수(대학원 시스템공학과) ▲한상돈 교수(법학전문대학원) ▲이원희 교수(법학전문대학원) ▲이규미 교수(교육대학원) ▲허균 교수(의학과)이다.



박 총장은 “우리 학교 발전의 초석을 마련해주신 교수님들의 노력과 헌신에 대한 감사하다”며, “앞으로 새롭게 펼쳐질 시간에 행운과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퇴임 교원들은 재직 기간 동안의 소회를 전하며 “우수 교원 유치 등 학교 발전에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년퇴임을 맞은 교수들은 재직 기간에 따라 훈장을 받으며, 정부포상 수여식은 9월5일(목)에 진행됐다. 정부포상 수여 대상자는 ▲녹조근정훈장(재직 36년 이상~37년 미만) - 송현호 교수 ▲옥조근정훈장(재직 33년 이상~35년 미만) - 이상덕·김상열 교수 ▲근정포장(재직 30년 이상~33년 미만) - 허균 교수 ▲국무총리표창(재직 25년 이상~28년 미만) - 김형택·이재천 교수 ▲장관표창(재직 15년 이상~25년 미만) - 한상돈·이규미 교수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직 직원에 감사패 전달



2019학년도 1학기를 끝으로 퇴직하는 우리 학교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뜻깊은 행사가 마련됐다. 8월21일 마련된 정년 기념 오찬에는 박형주 총장과 권순정 총무처장 등이 함께 자리해 퇴직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퇴직 직원은 모두 4명으로 ▲정년퇴직자 송은주(前 자연과학대학교학팀장) ▲ 명예퇴직자 김경숙(공과대학교학팀), 나가식(공동기기센터), 이경희(교육대학원교학팀) 등 총 3명이다.

이날 오찬 행사는 퇴직 직원들에 대한 감사패와 기념품 전달식에 이어 ▲박형주 총장의 인사말 ▲퇴직직원의 고별사 순으로 진행됐다.

“환영합니다!” 신임 교원 임용장 수여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아주 가족으로 합류하는 신임 교원에 대한 임용장 수여식이 열렸다. 지난 8월27일 울곡관 제1회의실에서 열린 임용장 수여식에서는 새로 이 아주 강단에 서게 된 5명의 신임 교원들이 함께 자리했다. 박형주 총장과 학교법인 대우학원 추호석 이사장, 주요 보직자들이 함께해 축하를 보냈다.



올 2학기에는 의료원 1명을 포함해 총 5명의 신임 교원이 임용됐다. 박형주 총장이 신임 교원들에게 직접 임용장을 수여하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어 추호석 이사장의 환영 오찬이 이어졌다. 임용장 수여식 이후에는 신임 교원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됐다. 한편, 신임 교원들은 8월30일-31일 양일간 개최되는 임용 3년 이내 교원 세미나에 참석해 아주 가족으로서의 포부를 다졌다.

2019년 2학기 신임교원

- ▲박종호(국방디지털융합학과) ▲이형우(물리학과)
- ▲이효진(법학전문대학원) ▲이슬(인공지능·데이터사이언스학과)
- ▲김혁훈(응급의학과교실)

‘자가면역질환 치료제’개발

최상돈 교수
생명과학과 분자과학기술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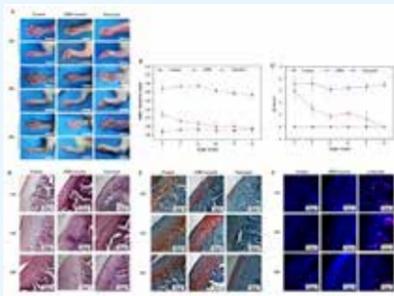


아주대 최상돈 교수(생명과학과·분자과학기술학과)가 류마티스관절염 유발 동물실험을 통해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를 개발했다. 최상돈 교수 연구진은 7월15일 선천면역의 중요 신호분자인 톨-유사 수용체(Toll-like receptor)를 제어하는 펩타이드 약물을 개발해 그 치료 효과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최상돈 교수 연구진의 결과물은 7월 <Journal of Medicinal Chemistry> 온라인에 게재됐다. 논문의 제목은 <선형 및 이성 설계 스테이플러 펩타이드가 류마티스관절염 쥐 모델에서 TLR4 경로를 제어하고 염증성 증상을 완화시킴(Linear and Rationally Designed Stapled Peptides Abrogate TLR4 Pathway and Relieve Inflammatory Symptoms in Rheumatoid Arthritis Rat Model)>이다.

해당 연구는 아주대 분자과학기술학과 김문석 교수, 유태현 교수를 비롯해 경희대 이상호 교수 연구팀이 공동연구로 진행했고, 최상돈 교수가 교신저자로 참여했다. 공동 연구진의 기술은 올해 상반기 20억 원에 쟁쟁(대표 이성호)에 기술 이전됐다.

최상돈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 발굴된 펩타이드 치료제는 부작용이 없고 반감기도 길어서 본 연구에서 입증한 류마티스뿐만 아니라 그와 발병기전이 유사한 다양한 자가 면역 질환에도 치료 효과가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에스피씨아이에 ‘1-옥텐 제조 촉매기술’ 이전

산학협력단



아주대가 ‘1-옥텐 및 1-헥센 제조 촉매기술’을 국내 촉매 대량생산 기업인 (주)에스피씨아이에 기술 이전했다. 아주대 산학협력단은 6월26일 이분열 교수(대학원 분자과학기술학과)가 개발한 ‘1-옥텐 및 1-헥센 제조 촉매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주)에스피씨아이와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아주대는 에스피씨아이로부터 8억 6,000만 원의 기술료와 총매출액의 3.5% 수준의 경상기술료를 지불받고, 에스피씨아이는 기존 위탁생산 위주의 사업 범주를 넘어 특허권 기반의 독점적 자체 촉매시장 개척에 나서게 된다.

‘1-옥텐’과 ‘1-헥센’은 폴리올레핀 중합체 제조시 다량으로 사용되는 화합물로, 국내에서 매년 10만 톤 이상 사용되고 있지만 현재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아주대에서 개발한 촉매는 에스피씨아이에서 양산해 해외 LAO(linear α -olefin :선형 알파-올레핀) 제조 업체에 납품하거나 국내업체의 LAO 생산 설비 신설을 촉발해 매년 50~100억 원의 매출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전량 수입에 의존중인 LAO를 자체 생산해 우리나라 석유화학 업계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기술 발명자인 이분열 교수는 “이번에 기술 이전된 촉매 기술은 고가의 MAO(메틸알루미늄복합물)를 사용하지 않는 촉매로서, 촉매 단가를 10분의 1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낮췄을 뿐 아니라 고온 안전성을 확보하고 폴리올레핀 부산물을 생성을 줄여 안정적 공정 운전을 담보한 기술”이라며 “선진 업체 및 학계에서 지난 15여 년 동안 개발을 추진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독자적인 촉매 시스템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1-옥텐 제조 촉매 기술’은 C1가스 리파이너리 사업단, ‘1-헥센 촉매 기술 및 MAO-Free 촉매 개발 전략’은 과학기술일자리 진흥원의 도움을 받아 수립됐다. 기술이전을 위한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은 교육부의 BRIDGE+ 사업과 한국특허개발전략원의 제품단위 특허포트폴리오 구축 지원 사업의 도움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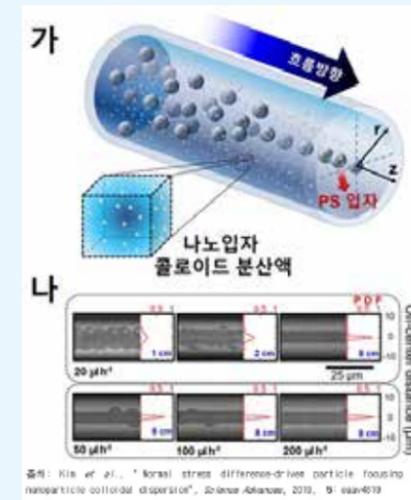
나노입자 분산액에서 ‘입자 집속현상’ 발견

김주민 교수 연구팀
화학공학과·대학원 에너지시스템학과



김주민 교수 연구팀이 나노입자가 분산된 유체 흐름에서 직경이 수 마이크로미터 입자가 유로 중앙에 집중되는 현상을 발견했다. 이번에 발견된 ‘입자 집속현상’은 미세입자 분포의 불균일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이차전지의 제조 공정을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민 교수(화학공학과·대학원 에너지시스템학과)가 주도하는 연구팀은 나노입자 분산액의 탄성을 정량화할 수 있는 ‘미세유체 기술’을 제시했다고 6월12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20년 넘게 이론적으로만 예측된 ‘나노입자 분산액의 탄성’에 의한 독특한 유동현상을 보고한 것으로, 산업적 활용도가 높아진 나노입자 분산액의 역학적 이해를 돕는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해당 연구는 중요성을 인정받아 세계적 학술지



인 <사이언스 어드밴시스(Science Advances)> 6월7일자에 온라인 게재됐다. 논문의 제목은 <나노입자 콜로이드 분산액에서 수직 응력차에 의한 입자 집속(Normal stress difference-driven particle focusing in nanoparticle colloidal dispersion)>이다. 해당 논문의 제1저자는 아주대 김부건 학생(에너지시스템학과·박사과정)이고, 유태현 교수(응용화학생명공학과)가 공동저자로 참여했다.

에너지 저장소자로 각광받는 이차전지는 개별 기능을 지닌 작은 입자(나노 및 마이크로 크기)를 용매에 분산시킨 뒤 기판 등에 도포해 제조된다. 이때 이차전지의 성능은 다양한 크기의 입자를 얼마나 공간적으로 균일하게 분산시키느냐에 따라 많이 좌우된다. 김주민 교수팀이 발견한 독특한 유동 현상은 나노 크기의 입자들에 의해 발현된 탄성 때문에 마이크로 크기 입자들의 공간적인 분포가 불균일해질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김주민 교수 연구팀은 미세채널(내경 25 μ m) 속 나노입자 분산액 내 폴리스티렌 입자(직경 6 μ m)의 움직임을 관찰해 입자 집속현상을 발견했다. 그 외 입자 집속현상은 혈액의 혈장을 구성하는 단백질 용액에서도 발견됐다고 김주민 교수는 설명했다.

그는 “입자 집속 현상의 발견을 통해 오랜 기간 예측되어 왔던 콜로이드 유변학 이론을 증명함과 동시에 이차전지 재료 및 인체 혈장의 물리적 특성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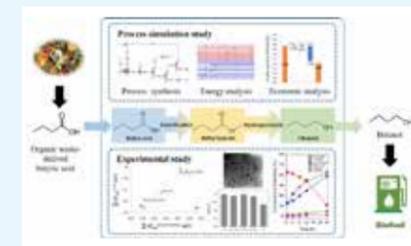
‘친환경 휘발유 대체물질 생산공정’ 개발

이제찬 교수
환경안전공학과



이제찬 교수(환경안전공학과)가 유기성 폐기물로부터 친환경 휘발유 대체물질을 생산하는 공정을 개발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음식물 쓰레기 등의 유기성 폐기물에서 바이오에탄올보다 연료로서 물성이 뛰어난 부탄올의 생산가능성을 높게 됐다. 이제찬 교수가 참여한 연구는 최근 <Applied Energy> 온라인 최신호에 게재됐다. 논문의 제목은 <유기성폐기물 유래 휘발성 유기산으로부터 바이오알콜 생산 공정 개발에 관한 연구(Bioalcohol production from acidogenic products via a two-step process: A case study of butyric acid to butanol)>이다.

이 연구는 세종대학교 연구팀, 전북대학교 연구팀, 루이지애나주립대학교 연구팀과 공동연구로 진행됐고, 이제찬 교수는 교신저자로 참여했다. 이제찬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 기존에 상용화된 바이오알콜 생산 공정에서 쓰이는 발효 등의 생물 공정인 아닌 불균일계 촉매 공정을 통해 부탄올의 수율과 생산성을 향상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해당 실험연구를 바탕으로 large-scale의 공정모사 및 경제성평가를 수행한 결과, 기존 식용작물에서 바이오에탄올의 생산 비용과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유기성 폐기물 유래 물질로부터 에탄올보다 더 뛰어난 연료물성을 가진 부탄올을 생산할 수 있음을 실증했다”고 설명했다.



EVENT

**‘LINC+ 대학연합
경제사절단’ 구성,
437만 달러 수출 길 열어**

아주대가 ‘LINC+ 대학연합 경제사절단’을 구성해 437만 달러 규모의 수출 활로 개척에 기여했다. 지난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서 열린 World-OKTA(회장 하용화) ‘2019 CIS·유럽 경제인대회’에 참가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수출계약 체결을 지원한 것.

‘LINC+ 대학연합 경제사절단’은 8개 회원 대학의 LINC+사업단(기톨릭관동대, 경남대, 경희대, 계명대, 성균관대, 아주대, 전주대, 한남대)과 가족회사 등 총 57명으로 구성됐다. ‘LINC+ 대학연합 경제사절단’을 통해 ▲글로벌 산학협력역량 강화 ▲권역 간 공동사업 전국 확산 기회 마련 ▲World-OKTA CIS·유럽 대륙대표단과 참여대학 간 산학협력 MOU 체결 및 협력 활성화 교류 등을 수행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이낙연 국무총리 공식방문과 연계한 ‘한-키르기스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통해 LINC+ 대학연합 경제사절단(대학 및 참여기업)을 격려하는 뜻깊은 자리도 마련됐다.

그 외 아주대는 7월 16일 World-OKTA 비슈케크지회(지회장 오상택)와 글로벌 산학협력 거점센터 운영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도 거뒀다. 이번 협약 체결로 아주대의 13번째 글로벌 산학협력 거점센터가 확보됐다.

경제사절단을 인솔한 오성근 산학부총장(LINC+사업단장 겸임)은 “글로벌 산학협력 거점센터를 통해 향후 지역기업과 재학생들의 해외진출뿐 아니라 글로벌 무대에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VENT

**아주대-항공우주연구원,
연구협력 MOU 체결**

아주대가 미래 우주 산업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연구협력 MOU’를 체결했다. 협약식은 6월23일 울곡관에서 박형주 총장과 임철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 관련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 체결에 따라 양 기관은 항공우주인력을 양성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위성시스템과 위성정보, 재난대응, 인공지능 등 항공 우주기술과 다양한 분야를 융합해 국내 경제적 부가가치를 함께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임철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은 “아주대학교와 아주대학교 ITRC(SICAS)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우수한 항공 우주 인재를 양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더 나아가 세계 속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현 ITRC센터장은 “이번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MOU 체결을 계기로 인력 교류, 공동 연구 및 기술 지원 등의 다양한 상호 교류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아주대 위성정보 융합 서비스 ICT 인력양성 연구센터는 2018년 과기정통부의 대학 ICT 연구센터에 선정됐다. 아주대는 위성 정보 관련 산업체, 연구소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첨단 우주기술을 개발하고, 위성정보 ICT 융합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EVENT

**‘파란사다리’ 발대식 개최
전국 176개교·1220명 참가**

취약계층 대학생들에게 해외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파란사다리’ 프로그램 발대식이 6월26일 서울 더케이호텔 아트홀에서 개최됐다. 아주대에서는 파란사다리에 선발된 학생 100여 명과 박형주 총장이 참석했다. 올해 파란사다리 프로그램에는 전국 176개교에서 1,220명의 학생이 참가한다.

파란사다리 사업은 취약계층 대학생들에게 진로 개발과 진로 개척의 기회를 열어주고 교육의 형평성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참가 학생들에게는 해외 진로 탐색의 경험을 쌓을 수 있게 국비 및 대학지원금이 전액 지원된다. 해당 사업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주관하고 있다. 아주대를 포함해 전국의 15개 대학이 파란사다리 사업에 참여해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파란사다리는 아주대가 지난 2015년 시작한 ‘AFTER YOU 프로그램 - 아주 글로벌 캠퍼스’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이를 모태로 탄생한 정부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아주대는 기존의 ‘AFTER YOU 프로그램’을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파란사다리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아주대에서는 올해 여름 파란사다리 2기 총 100명의 학생(타교생 20명 포함)을 선발해 이달 미국 미시간대학교와 워싱턴대학교와 중국 상해교통대학교에 4주간 파견한다.

한편, 아주대는 지난 6월 1주간 파란학기 사전교육을 진행하고 진로디자인워크숍을 비롯해 작은 도전 설계 교육, 해외안전교육 및 Education USA의 지역담당관을 초청해 출국 전 세미나를 마련했다. 박형주 총장은 “넓게 보기, 더 큰 꿈꾸기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학생들에게 “새로운 문화 환경에 가서 배우는 방법을 배우고 연결의 경험을 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VENT

**재학생 협동조합,
‘2019 청사진 아이디어톤’ 개최**

아주대 재학생으로 구성된 청사진 협동조합이 장애인에 대한 사회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청년을 대상으로 ‘2019 청사진 아이디어톤’ 대회를 개최했다. 청사진 협동조합은 5월2일 시상식을 열고 우수 아이디어를 제시한 10개 팀을 선정했다. 이 대회에는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의 청년 150여 명이 참가했다. ‘청사진 협동조합’은 아주대의 도전학기 프로그램인 ‘파란학기제’를 통해 만들어진 조합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이번 대회를 마련했다. 아이디어톤이란 아이디어(Idea)와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이다.

대회는 ‘장애인의 접근성 문제 해결’을 주제로, ▲장애인의 ICT 분야에서의 접근성 문제 해결 ▲장애인의 건설·산업 분야에서의 접근성 문제 해결 등으로 섹터를 나누었다. 섹별로 대상 2팀(▲아주대학교 총장상 ▲수원시장상)에게는 각 100만 원, 최우수상 2팀(▲수원시의회 의장상)에게는 각 50만 원의 상금이 주어졌다.

대회를 통해 ICT 분야에서는 사진에 음성녹음 기능을 탑재한 아이디어를 비롯한 점자지도, 청각언어장애인 응급구조 신고 앱 등이 나왔고, 건설·산업 분야에서는 장애인의 육아 도움 앱, 보급형 접이식 경사로 등의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참가 청년들이 제시한 아이디어는 청사진 협동조합과 아주대학교, 수원시, 수원시의회 등이 논의해 실제 사회 정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EVENT

**아주대,
제10회 한국대학랭킹포럼 개최**

대학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기 위한 ‘제10회 한국대학랭킹포럼’이 열렸다. 대학랭킹포럼은 5월17일 아주대에서 박형주 총장과 지역석 엘스비어(Elsevier)회장, 김태완 QS 한국 지사장을 비롯해 각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올해에는 ‘대학 랭킹과 대학경쟁력’을 주제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서로 의견을 공유했다. 박형주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날은 한 분야의 전문성으로만 승부할 수 없다”며 “대학에서 오려 소양 교육과 기초교육이 더 중요해졌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를 서로 연결해낼 수 있는 ‘CONNECTING MINDS’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지역석 엘스비어 회장은 ‘아주’를 예로 들어, “다른 어떤 스포츠보다 많은 데이터를 선수 선발과 교체 등에 활용중인 스포츠이고, 이는 데이터가 움직이는 거대한 비즈니스의 하나”라며 “이를 통해 어떻게 데이터를 대학에서 이용하고 무엇을 적용해야 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석 회장은 “앞으로 5년은 대학평가의 기준이 바뀔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목표를 이룰 수 있게 사회에 얼마나 ‘실질적’이고 ‘영향력’을 끼치는지 여부가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은 대학순위 같은 단기간 성과를 내는데 열매이기보다 꾸준히 방향을 잡아주는 존재여야 하고 대학이 어디에 특화될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 지 회장의 설명이다.

그 외 이번 포럼에는 ▲김태완(QS한국지사장) ▲DANA Chang(Elsevier and URFK) ▲강윤희(Clarivate Analytics) ▲Alexandros Papaspyridis(MS Singapore Office) ▲남순건(경희대 기획처장) ▲김병권(와이즈유 국제협력단장) 등이 나서 세션별로 강연했다.



EVENT

**아경장학재단,
2019학년도 1학기
장학증서 수여**

2019학년도 1학기 아경장학재단 장학생으로 선정된 29명에게 장학증서가 수여됐다. 아경장학재단 장학증서 수여식은 5월9일 울곡관 영상회의실에서 아경장학재단 이종철 이사장과 이사진, 박형주 총장 및 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학기에는 총 29명의 학생들이 6,635만 원 상당의 장학금 혜택을 받았다. 아경장학재단은 경영대학원 총동문회가 설립한 장학재단으로, 지난 2007년 4월 설립이후 현재까지 455명의 학생들에게 총 14억여 원의 장학금 및 각종 교육프로그램, 연구비 지원 및 시설 개선 등 아주대의 다양한 분야에 기부했다. 특히, 중증외상센터 지원 및 잔디구장 건립지원 등 학교 발전을 위해 필요한 여러 분야에 지원했다.

〈2019학년도 1학기 아경장학재단 장학생〉

- 아경장학(최고)**
▲허중섭(환경안전공학과) ▲김성욱(전자공학과)
▲임형훈(물리학과) ▲박세영(경영학과)
▲김현수(문화콘텐츠학과) ▲공혜미(행정학과)
▲이준학(의학과) ▲한동민(간호학과) ▲이지훈(약학과)
▲이별빛(법학전문대학원)

- 비전장학**
▲박대현(경영대학원) ▲고경아(경영대학원)
- 아경글로벌장학**
▲YUSUFOVA MUNISA(경영학과)
▲ZHENG XIANGHUA(경영학과)
▲LI FANGYI(경영학과)
▲WILLIAMS COLEMAN(경영학과)
▲lianna(경영학과) ▲LI WENHAO(경영학과)
▲PUREVSURENNYAMSUREN(경영학과)
▲ABDUVALIEV DOSTONBEK(경영학과)
▲HUANG NA(경영학과)
▲XING LIXUE(경영학과)
▲CUI XIXI(대학원 경영정보학과)

- 박문회장학**
▲서지원(경영학과)
- 아경포럼장학**
▲심상희(경영학과)
- 아경축구부장학**
▲김재민(스포츠레저학과) ▲류승범(스포츠레저학과)
▲박영현(스포츠레저학과)



AWARD & SELECTION

대학 평생교육 기능 강화,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 선정

아주대가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이에 앞으로 성인 학습자 친화적 평생 교육 체제의 구축을 위해 4년 동안 연간 3억 원을 지원 받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 4월 말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에 참여할 대학 30곳(일반대 23개교, 전문대 7개교)을 선정해 발표했다. 선정 대학에 대한 지원금은 총 234억 원으로 사업의 운영 형태와 규모 등을 고려해 차등 교부된다. 아주대는 수도권에서 선정된 일반대학 7곳 중 하나로, 수도권에서는 경희대와 동국대, 명지대 등이 참여한다. 그 밖에 충청권, 강원대경권, 호남제주권, 동남권에서 각 4곳의 대학(일반대)들이 선정됐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선정된 대학을 대상으로 5월부터 착수 컨설팅에 나선다. 이후 사업협약을 체결해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대학별로 운영 형태를 달리해 단과대학형, 학부형, 학과형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은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선취업 후학습이 강조되는 현 상황을 고려해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는 이 사업을 통해 성인 학습자가 언제 어느 때라도 원하는 시기에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학 여건을 조성해가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AWARD & SELECTION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사업 선정 3년간 30억 원 지원받아

아주대가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에 선정됐다.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사업은 융합지식과 4C 능력(비판적 사고력(Critical thinking)·소통능력(Communication)·창의력(Creativity)·협업 능력(Collaboration))을 갖춘 문제 해결형 인재를 양성하는데 초점을 둔 사업으로,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 주관하고 있다.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이하 LINC+)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이다.

해당 사업에는 올해 LINC+사업(산학협력 고도화형)을 수행 중인 36개 대학이 신청해 아주대를 포함해 10개교가 최종 선정됐다.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 3년간이며, 사업비는 연간 10억원 규모다.

아주대는 지난 2018년 'LINC+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주제선정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경쟁력 있는 혁신분야를 선정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특히 전자공학과(학과장 김상인)를 사업 주관 학과로 선정해 '지능형 반도체 센서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아주대는 ▲반도체 산업 트렌드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 혁신 ▲중소기업 애로기술 발굴 및 문제해결 과정에 기업이 참여하는 교육방법 혁신 ▲소통·융합·실습이 일원화된 교육환경 혁신 등 3개 분야에서 혁신사업을 수행하고 '초연결·초지능 사회'를 위한 창의적 반도체 센서 전문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AWARD & SELECTION

아주통일연구소·조정훈 소장,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 혁신리더대상' 수상

아주대 아주통일연구소와 조정훈 아주통일연구소장이 '2019 대한민국 지속가능 혁신리더대상'을 수상했다. '2019 대한민국지속가능혁신리더대상'은 정치와 사회, 경제, 교육, 체육, 문화, 예술, 환경 등 전 분야에 걸쳐 지속적인 혁신을 바탕으로 해당 분야에 기여한 지자체·기관·법인 및 단체·개인 리더를 발굴하고 포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주통일연구소는 통일교육연구 부문에서 국회 상임위원장 표창을 받았고, 조정훈 아주통일연구소 소장은 통일발전 부문에서 본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은 공모와 추천을 통해 신청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후 후보자를 1차 선정하고 1차 선정된 후보자들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의 현질사 등을 통해 평가하여 2차 후보자를 선정했다. 마지막으로 조직위원회 심사위원들의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논의해 최종적으로 본상 12명과 국회 상임위원장 표창 38명이 선정됐다.

'2019 대한민국지속가능혁신리더대상'의 조직위원으로는 박성득 한국해킹보안협회 회장(전 정보통신부 차관), 박환희 전주시도의정회협의회 사무총장, 안민호 숙명여자대학교수, 오승곤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교수, 임정혁 변호사(전 대검차장, 서울고검장)가 참여했다.



AWARD & SELECTION

박춘식 교수, 제8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 '녹조근정훈상' 수상

아주대 박춘식 교수(사이버보안학과)가 정부로부터 정보보호 발전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로 선정됐다. 박춘식 교수는 6월 10일 열린 '제8회 정보보호의 날' 정부 기념식에서 녹조근정훈상을 수상했다. 박춘식 교수 외에도 조영철 파이오링크 대표와 이상권 수산아이엔티 대표 등 13명이 우리나라 정보보호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포상을 받았다.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사이버공격위험 예방과 정보보호 생활화를 위해 매년 7월 둘째 주 수요일을 정보보호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5G(세대)+ 초연결시대 정보보호'를 주제로 관계부처, 정보보호 유공자, 산학연 관계자 등 1,5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 외에도 국제 정보보호 콘퍼런스, 진로상담회, 연구개발 성과물-제품 전시회, 블록체인 콘퍼런스,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의 행사가 열렸다. 특히, 제품전시회에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보안기술을 비롯해 지능형 CC(폐쇄회로)TV 솔루션 등 5G 보안 신기술과 이를 적용한 보안제품 16종이 전시됐다.



AWARD & SELECTION

이상신 교수팀, 국립국어원 '중앙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 사업' 참여

아주대 이상신 교수(국어국문학과) 연구팀이 국립국어원의 <2019년 중앙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 사업>을 이끌어갈 연구진으로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이 교수 연구팀은 중앙행정기관의 보도자료, 홈페이지, 정부 업무보고자료 등의 공공언어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진단하게 된다.

국립국어원은 중앙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 사업을 통해 언어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진단·분석해 왔다. 이를 기반으로 국어사용 환경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상신 교수의 이번 사업 주관 연구진 선정은 이 교수 연구팀의 전문성과 성실성이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평이다. 이상신 교수는 2018년 국립국어원의 <온라인가나다 상담 사례 모음 재정비>를 비롯해 최근 여러 차례의 정부 위탁 사업을 수행하며 연구 수행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상신 교수는 "중앙행정기관의 언어 사용이 국민에게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번 사업은 공공성이 매우 높고 중요한 사업"이라며 "참여 연구진들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연구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년 중앙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 사업>을 주도하는 이상신 교수팀은 중앙행정기관들의 보도 자료를 선별해 사용된 언어의 정확성을 평가한다. 정부 업무보고 자료와 홈페이지 첫 화면의 정책용어와 외래어·한자어 표기 등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이후 연구팀은 공공언어 개선을 위한 대안어 목록을 마련하고, 정부의 보도자료 작성자들을 대상으로 연수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AWARD & SELECTION

대학원생 임성근·이기탁,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최우수 논문상' 수상



아주대 대학원생 2명이 '2019년도 한국정보과학회 컴퓨터종합학술대회(KCC 2019)'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컴퓨터종합학술대회는 컴퓨터 분야 국내 최대 학회인 한국정보과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로, 6월 26일부터 31일 동안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를 통해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 17개 분야에서 80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대회에서 아주대 대학원 임성근·이기탁 학생(전자공학과)은 모바일 및 응용시스템 부문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받았다. 수상 논문의 제목은 'I-R Drop을 고려한 AMOLED 디스플레이 전력 모델'이다.

이번에 수상한 학생들은 전자공학과 임베디드 컴퓨팅 및 시스템 연구실에서 김영진 교수(전자공학과)의 지도로 스마트폰상의 AMOLED 디스플레이 전력 최적 모델과 CPU-GPU 최적 전력 모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